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地域開發委員會會議錄

城北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建設管理課, 交通行政課, 交通指導課

日 時：1995年11月30日(木) 午後1時

場 所：區廳行政事務監査場

(13時05分 監査開始)

○委員長 李鍊炯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성북구의 회 지역개발위원회 소관사항중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동식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이어서 금년도 모든 사업마무리에 바쁘신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국소관 지역개발사업 및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서 의정활동과 96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이를 시정토록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95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감사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에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李東湜

(선서)

○委員長 李鍊炯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업무 현황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동식국장님께 업무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李東湜 업무보고를 올리기 전에 우선 저희 건설국과장의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경위원장님과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여러분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건설업무 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였 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시는 미처 깨닫지 못한 사항들을 많이 지적하여 주셔서 개선한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감사시에도 잘못된 점 또는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여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잘한 것은 좀 칭찬을 해주셔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예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李東湜 네.

○金順權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鍊炯 네. 김순권위원님.

○金順權委員 김순권위원입니다.

문서검증을 위해서 문서를 조금 가져다 주십시오.

○委員長 李鍊炯 아니, 조금계세요. 업무현황보고 끝난 다음에 해주세요.

○金順權委員 아니, 잠깐 지금 할게요. 맞

나?

○委員長 李鍊垈 아니.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중이니가 끝난 다음에,

○金順權委員 문서검증을 위해서 지금 자료가...

○委員長 李鍊垈 이거 끝난 다음에 해주세요. 끝난 다음에

○金順權委員 문서검증을 위해서 지금 가져오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委員長 李鍊垈 아니, 그래도 업무보고 마친다음에 해주셔야지.

○金順權委員 아니, 지금 할게요.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통입니다. 95년 민원접수처리 현황자료를 가져 오십시오.

두번째 문서수발대장 95년도 부터 지금까지 가져 오십시오. 수발대장입니다. 세번째 마을버스 감독일지를 가져 오십시오. 네번째 개인택시 운전자격대여에 관련된 법규 및 서울시지침 관련서류를 가져오십시오. 다섯째 마을버스차고지 관리지침 및 또는 현장방문 결과서류를 가져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垈 예. 계속해서 업무현황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李東湜 예. 그러면 건설국장이 건설국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建設局長 李東湜 7페이지 입니다.

교통행정분야에 되겠.....

(「위원장」 하는 이 있음)

○羅光洙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李鍊垈 예. 나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羅光洙委員 지금 건설국장께서 나온자료와 지금 업무보고와 비슷합니다. 회의 진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감사자료와 엇 비슷하니까 감사해서 지적할 것이 있으면 하기로 하고 요점만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칸 한칸 다 읽으려면 언제 다 읽겠습니까?

○委員長 李鍊垈 예. 전부 다 읽을게 아니라 요점만 간추려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할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예. 요점만 간추려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建設局長 李東湜 마지막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그 결과, 시정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鍊垈 네, 국장님!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建設局長 李東湜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실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垈 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업무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東翼委員 자료요구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垈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3항 서류제출요구 방법은 늦어도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金順權委員 위원장, 자료제출요구가 아니라 문서검증입니다.

○委員長 李鍊垈 자료제출요구를 말씀했습니다.

○許東翼委員 그러면 문서검증을 요구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垈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집행부 관계관에서 한가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은 페이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현황보고를 하실 때 자료를 보더라도 페이지로 하니까 얼마나 편리한가요? 여기 페이지가 전혀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그래

서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안하고 이 자료가 얼마나 성실하게 됐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페이지가 없죠?

○建設局長 李東湜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다면...

○委員長 李鍊炯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요.

○建設局長 李東湜 예. 오늘까지 전부 페이지를 넣어가지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아직도 내일 오늘하고 내일이 남아 있으니까 페이지를 적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興先委員 네, 유홍선위원입니다. 교통주차난 가지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 주차제입니까? 단속반입니까? 지금 마을버스 재허가 경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4년도에 '94년도 '93년도 마을버스 주차장을 과연 등록대로 주차이행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 주차장 단속을 몇 회나해서 그 주차장 확인을 했는가?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항상 우리 구의회 올라가 보면은 돈암마을버스가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버젓이 있는데 거기서 정비도 하고 모든걸 하고 있는데 그 과정도 손상히 말해 주고 또 지금 현재 마을버스 정비를 할 때는 즉 말하면은 2급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비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각 마을버스마다 배정이 되어 있는가를 묻고 싶고, 또 허가때만 허가경신할 때만 마을버스 허가주차장을 버젓이 만들어서 허가상에는 하자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평상시 마을버스 운행할 때는 그 주차장을 이용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답해 주고, 또 매년 마을버스 매년이라든가 청소관계도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성북구민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李鍊炯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承魯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鍊炯 네, 이승로위원님.

○李承魯委員 이승로위원 입니다.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공공용지 도로하천점용료 부과징수 및 미납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시수입, 구수입 모두 공히 도로점용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천점용료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조금 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때 징수율이 높다고 아까 자랑삼아 말씀을 하셨는데, 징수율이 하천점용료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도로는 일반 우리 일반주민들이 물론 한전이나 아니면 전기통신공사 도시가스 여러가지 있겠지만은 도로점용료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천점용료는 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에서 많이 점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도로와 하천의 징수실적, 왜 하천의 징수부분은 도로 보다도 적은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시고, 또 징수실적을 볼 것 같으면은 시수입이 구수입 보다는 징수가 월등히 잘되고 있습니다.

시수입은 90몇% 나와 있는데 구수입에서는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또 직원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해당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이 주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 지급이 얼마로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로 하천부분을 점용하고 있는 관을 제외한 일반주민들의 점용한 항목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예,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김영기위원님

○金鈴基委員 종암1동 김영기입니다.

종암4거리의 그 순환도로 램프가 4거리에 너무 인접해서 그 아마 앞으로 강북에 최고 교통혼잡이 있는 있으리라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또한 인접 길음역 순환도로 램프이용을 하고자하는 각 도로에서 교통량이 집중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서 길음역 환승주차장을 조기에 건립하여 사전준비가 필요한데 장기적인 구상을 밝혀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종암동은 성북의 중심지인데 주민들 특히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보문로나 구청방향으로 출퇴근할 시에 단번에 가지 못하고 그 차를 두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방향으로 노선버스를 증차할 계획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또한 버스가 불가하다면 순환마을버스의 운행에 대하여 검토해 보신적은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이상입니까?

답변 준비됐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교통행정과장이 유홍선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고지에서 이렇게 구청에 와가지고 차고지라든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만 이제 서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고지가 최초에는 저희들이 차량증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고지란게 88년도에 갑자기 이제 차량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바로 이제 법률을 만들자 차고지 확보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자는 그런것이 있었는데 그때가서 자동차 3개사의 어떤 로비활동에 의해서 거부가 됐었습니다. 계속 지금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차량만 증가하고 있다가 최근에 내가 밤중이라 기억하기에는 한 1년전으로 생각하는데 광진구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차고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차고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때 지적사항이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차고지에 관한 관심이 이렇게 지속이 됐다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건설교통부에서 차고지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중인데 이제 시행이 안되는 이유는 자동차회사의 어떤 압력때문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유홍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는 거의가 25인승이하의 중형입니다. 25인승 이하의 중형은 차고지 면적이 23에서 26내외㎡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물론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신것 같이 서류상에는 전부 다 돼있고 그런 서류상으로는 어떤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면은 차고지가 전산화가 안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주차장의 확보대수가 20대인데 차고지 나중에 다 받아보니까 나중에 확보된게 23대입니다. 즉 초과해 가지고 차고지 몇 개, 차량이 몇 대 차후신청을 받은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봄에 차고지를 전체적으로 전부 전산화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허가 받으려가면 이 주차장은 현재 가용대수가 몇대인데 차고지가 몇 대까지는 신청이 돼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몇 대를 더받을 수 있다 혹은 더 받을 수 없다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같은 단속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봄에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 한번 일제 점검을 한번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하루밤을 전직원이 동원이 돼가지고 하루밤을 날을 새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시에도 나와가지고 사진한번 찍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새벽5시에 나와서 사진한번 찍어줘야 됩니다.

즉 이것은 달리 말하면 단속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차고지가 전부 분산이 돼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주차장 해가지고 전부 분산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분산된 주차장마다 전부 찾아가서 저희들이 사진촬영을 해야되고 들어 왔는가 안들어 왔는가 차고지를 야간에 하차하는가 하차하지 않는가를 전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속상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어떤 해결책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차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안을 낸게 지금 방안이 몇 개 나왔는데 하나가 지금 북부도시 고속화도로가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밑에 땅이 지금 나대지가 상당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그 땅은 서울시 땅이니가 서울시에다 협의해 가지고 거기다가 일정면적을 확보를 해 가지고 마을버스를 전부 분산을 시키는게 아니라 차고지를 전체 공동차고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단속을 용이성도 있고 그런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차고지를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안은 정릉3동지역에 저희들이 주차장시설 결정지역으로 하나 잡혀놓은 게 있습니다. '92년도에 한건데 약 900평가량이 됩니다. 900평가량이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마을버스가 총 68대인데 거기서 시내버스회사에서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한 10대정도 되면 시내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차고지가 확보돼있기 때문에 나머지 58대를 저희들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규모의 마을버스차고지를 공동차고지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합해서 하게 되면 그것도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주차장공간으로 활용을 좀 할려고 합니다.

다음 두번째로 정비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금 시내버스 대형시내버스회사같은 데는 정비회사와 그 다음에 세차시설을 같이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한정내용 즉 마을버스에 한해서는 정비공장과 그 다음에 세차시설을 임차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자체정비업소와 임차계약을 해서 세차장을 갖춘업체는 지금 한군데도 없습니다. 정비업소는 지금 1급정비업소를 지금 임차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동차고지를 지금 계속 주선을 하고 있는게 전부 60대를 전부 한곳에다 놓는다면 차고지의 지금 계속 주선을 하고 있는데 전부 60대를 전부 한곳에다 놓는다면 차고지의 어떤 안보문제에서 편의성도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전체 마을버스전체가 모여가지고 정비허가도 내고 그 다음에 세차허가도 내가지고 좀더 뚜렷한 주민들을 위한 차량 행정서비스를 좀 더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매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아리랑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쪽에 통과하는 것은 지금 아리랑회사인데 저희들은 신성 돈암2동에 있는 신성주차장에다가 차고지가 돼있는데 저희들이 몇 번 나가 봤는데 시정조치를 몇 번했는데 지금 계속 민원사항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리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야간단속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차고지 검열을 가까운 시일내에 한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柳興先委員 보충질의 좀 해도 돼요?

○羅光洙委員 거기 보충질문

○委員長 李鍊炯 네, 보충질의 유흥선위원님 하세요.

○柳興先委員 이게 차고지단속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차고지단속을 하면서 고생하시는지는 잘 압니다. 아는데 다른 차들은 주차하면 벌과금이 과태료가 얼마 나오는데 과연 마을버스단속을 해서 벌과금을 물렸는가? 이것도 알고 싶고 또 마을버스, 아침에 정비책임자가 나와서 일일점검도 하고 있는데 그 점검도 부실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세차를 매일 안한다해서 이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어느 정도로 이것도 서비스의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마을버스가 지저분하기 한이없고 타보면 한이없고 또 이 운전기사들도 횡포가 심해요. 그런 일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횡포단속도 좀 해야 되고 모든 문제점을 좀 해결합시다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앞으로도 이 마을버스가 허가낼 때만 즉 말하면 어느 주차장을 선정해 놓고 허가 갱신한 다음에 허가장을 받은 다음부터는 그 주차장에 안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단속을 해서 그 차가 그리 정확히 들어가야 되고 또 아까 말할 때에 어디 한 군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리다 하지만 과연 그 주차장을 이용하냐하면 안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주차장허가사항만 몇 대 들어 간다고 만들어서만 들어 놓고 과연 차가 안들어가는 조건으로 한달에 한대당 얼마 이렇게해서 한 달 것

만 주고 허가만 받는다 이 말입니다. 승인만 받고 그 서류만 여기다 제출해서 허가 경신하기 때문에 이런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점이고 앞으로 또 마을버스가 좀더 친절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서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보충질의 합니다.

○羅光洙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委員長 李鍊炯 예, 나광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羅光洙委員 지금 그 유홍선위원님이 참 마을버스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구민회관 그 주차장에 마을버스 1대를 고정으로 거기다 주차를 시켜놓고 거기서 사무도 보고 정비도 하고 또 이쪽에서 수도꼭지 빼 가지고 세차도 하고 그러합니다.

우리 성북구민 50만 구민이 예비군훈련이다 또 민방위교육이다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룹니다. 거기에 또 의회 회기기간이 같이 열렸을 때는 더 혼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가 정박을 시켜놓고 사무를 보고 정비를 하는지 그게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시정 조치 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여기 마을버스에 대한 마을버스뿐만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확보여부에 대한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속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버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단속상에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보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저희들이 올 봄에 나와가지고 일괄 지금 저희들이 벌금을 매긴바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가면 다시 또 야간박차를 하고 주택가에다 차량을 주차를 하고 그런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다간 이런 것 밖에 안되니까 저희들이

마련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공동차고지를 확보하느로서 정비업도 거기서 같이 할 수 있고 세차도 거기서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차량에 대해서 어떠한 서비스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버스정류장에 대한 정류장이 지금 각양각색이고 그다음에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마을버스정류장은 올해안에 아니 내년이 되겠군요. 내년에 저희들이 상업광고를 유치해 가지고 비예산 사업으로해 가지고 산뜻하게 저희들이 다 갖아가지고 도시미관을 좀 하겠고 그다음에 미관을 정비를 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잔돈교환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시기사들이 요금 300원을 내면 50원을 안겨슬러 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잔돈교환기를 계속 이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지금 말을 해 가지고 총 68대중에서 28대가 지금 잔돈 교환기가 설치가 돼있고 나머지 차량은 지금 잔돈통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아직 지금 거기까지는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96년도 사업으로 마을버스정류장과 잔돈교환기 그다음에 마을버스공동차고지를 확보하느로서 저희들이 나가면은 공동차고지에서 나가면 차량수만 세면 됩니다.

이 회사차가 몇 대인데 이 회사차가 지금 몇 대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차량은 바로 확보를 마을버스 원래 차고지에다가 차고를 안하는 구나 그렇게 단속하기가 용이하고 얼마든지 저희들이 단속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합니다.

다음에 이제 구민회관에 있는 아리랑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나가서 몇 번 직원들을 내보내는데 직원들이 나갈 때 마다 그렇게 한다. 한다. 하고 다시 치우고 치우고 그런식으로 지금 말그대로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민회관 아리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간에 야간 밤중에 나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근본적인 해결은 공동차고지 확보만이 마을버스의 어떤 차고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소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

○羅光洙委員 아니 그렇다면은,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유흥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즉 말하자면은 마을버스주차장 허가 당시 주차장 증명같은 것 다 제시했을 때 허위로 제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허위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막 그냥 동네 골목가운데 아파트 사이 거기다 세웠다는게 아닙니까? 지금 지도과장 얘기대로라면 아니 행정과장 얘기라면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운행정지등 운행정지같은 거 과감하게 좀 행정조치를 하라 이말입니다.

과태료 몇 푼 물려왔자 그 사람들은 거기서 벌여가지고 값으면 되요. 운행정지같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이면 한달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그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당장에 그 구민회관 안에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 의회 열릴 때마다 와서 불 겁니다. 아마.

보고 그것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에요. 예?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그거는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흥선 위원님이 질문한게 우리 지도과하고 조금 연관된 것 같아서 답변드리는데요. 우리가 감사자료 위원님 요구에 대해서 이런 8개항에 보면은 마을버스가 아까 이제 난폭운전이라든가 청소불량, 차고지위반, 잔돈미비치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49대를 적발을 해서 55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흥선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마을버스가 보다 좀 깨끗하고 친절하게 운영되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의 말씀이신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암동에서 구청간에 오는 마을버스라든가 어떤 시내버스노선을 투입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부터 이렇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마을버스를 넣을려고 그러는데 그 노선을 마을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시 한정명 운영요령에 보면은 시내버스가 다니는 구간에는 마을버스가 들어갈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체노선이 지금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넣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계속 그래서 시에다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803번을 돌려주든지 여러가지 시내버스노선을 새로이 신설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새로 생긴 지역순환버스를 넣어주든지 이렇게 해 달라 지금 계속했는데 지금들이 거기서 회신이 지금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조합에다가 시내버스조합에다가 말하자면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당신들이 올해안에 만약에 시내버스노선을 안넣어준다면은 우리들이 내년부터 바로 마을버스를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중에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마을버스를 바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음역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길음환승주차장은 총사업비가 약76억이 들어갑니다. 보상비가 30억 건축비가 약46억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0억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연초에 저희들 1대의원님들께서 30억을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되고 보상은 내년 6월중에 끝나게 됩니다. 늦어도 6월중에 끝나게 되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지금 올해 시에서 11억7천만원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건설비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초에 바로 설계에 들어가가지고 내년 7월부터는 보상이 끝나면 보상이 바로 끝나면은 바로 건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약 300대 규모로 해 가지고 97년도 약6월이나 7월까지 해서 약1년 기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와료를 할려고 그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비 46억은 애초에 저희들은 시비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하면은 저희들이 구자체에서 이 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가지고 저희들이 시 주차계획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주차계획과에서 예산편성을 다 해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계속 주차계획과에 설득의 설득을 거듭을 해 가지고 이번에 46억이라는 돈을 지금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환승주차장의 어떤 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또 건축 당겨가지고 97년도 중반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김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암사거리 램프는 저희들이 이 공사는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이 건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보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그걸 지으면서 각 램프가 떨어진 곳에 대한 지금 교통처리계획을 다 세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종합건설본부 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이 계획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계획에 대해서는 별로 손을 지금 대지는 구자체에서 손을 대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또 종암동에 지금 이번에 재개발이 또 이렇게 구역지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대한 어떠한 차량수가 급증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교통혼잡을 막는 방향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鈴基委員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예. 김영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金鈴基委員 종암램프관 말이죠, 종암사거리에 어느 정도 지금은 떨어져야 하는데 거기서 불과 50m 이내의 거리에 램프 내려오면은 내려오면은 만약 거기 신호대기에 말

이죠. 교통체증이 일어날 때는 아마 고가가 꼭 막힐 겁니다.

그런데 원래 설계할 때에 이런 것도 검토해 보지 않고 말이지 그냥 탁상행정이 이렇게 앞으로 큰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사거리에 말이지, 인접거리에 램프설치가 됐다. 현장가서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한 50m 이쪽 저쪽거리밖에 안되요. 실제.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저희들이 이번에.

○金鈴基委員 앞으로 참 걱정이 됩니다. 이제

○交通課長 金雲熙 그 부분은 이제 중앙월암교차로에서 거리가 좀 짧은 것은 사실인데요. 실제 계획을 종합검토해서 계획내용을 저희들이 보면은 북부간선도로 고가 위에서도요. 별도 차선을 한5백m 정도를 끌고가서 적법한 걸로 돼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5백m 정도는 고가위로 계속 올라타 가지고 대기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서라벌고등학교앞에 까지 대기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고가가 일반구간이 26m 계획이 있는데 그 구간은 그걸 감안해서 폭이 양쪽에 램프관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金鈴基委員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본다면은 바로 램프가 내려오면은 그사거리에 50m 이내에 선에 들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그차가 말이지 교통혼잡할 때는 그 고가를 말이지 차로서 완전히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그러한 현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交通課長 金雲熙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제가 이제 종합건설본부감독이나 감리자측에 그런거를 종암로 교통을 검토하면서요. 그거를 검토하면서 종합건설본부측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쪽에 얘기는 램프가 들어갈려면은 도로구조상에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부도로에 폭이 충분해야 되고 또 중간선행이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위로 물러설 경우에는 길음교 있는데서 상당히 오르막이 심하게 돼가지고 정릉쪽으로 넘어가게 돼있기 때문에 뒤로 빼구했을 때는 그런 중단처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金鈴基委員 그냥 넘어갑시다.

○許東翼委員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예. 보충질문 하세요. 허동의 위원님.

○許東翼委員 돈암1동 허동의 위원입니다.

길음역환승주차장건립에서 주택건물평가액 문서검증등 액수나오는거요. 사유지는 얼마 나왔으며 국유지는 얼마 나왔으며 무허가 건물과 사유지에 대해서 그 문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도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지, 설계도를 좀 봐주면 좋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토지가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許東翼委員 예. 토지 가액입니다. 토지가액..., 그리고 지금 하얀램프가 내려오는데 뒷부분 도로 말입니다 하얀램프가 내려오는데 현대아파트가 인접돼 있습니다. 인접돼서 현대아파트에 주는 피해에 대해서 지금 종합건설본부와 현대아파트와 주민들이 지금 현재 다툼이 있습니다.

그걸 성북구청에서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길음역 환승주차장이 완공된 이후에 관리는 직영으로 할것인지 위탁으로 줄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을 월주차장요금같은 것은 위탁 관리에 다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하고, 그다음에 길음환승주차장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그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길음역을 이용할 수 있는 거기에 어떤 불편을 주고 있는지 안주고 있는지 그 도로를 지금 개설을 했는지 현대아파트 돈암1동 주민들이 길음역을 이용하는데 이 환승주차장이 생김으로써 오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설계에 잘 감안해 가지고 그 도로를 넣어서 했는지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鄭昌萬委員 주차장에.

○委員長 李鍊炯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鄭昌萬委員 보충질문 조금더해도 돼요?

○委員長 李鍊炯 아니, 답변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 하세요.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네,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가격액수는요. 공시지가는 물론 지금 조사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엔 감정평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평가법인에다요. 거기에서 나온 액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의뢰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경계측량은 저희들이 올 봄에 경계측량을 실시를 했습니다. 경계측량을 실시해 가지고 지금 측량도면에 성과도면이 나오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그 문제는 저희들과에서 해당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에서요. 저희들과에서 해당된 것은 지금 그 앞에 횡단보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에 나오다 보면 101동과 101동 사이에 좌회전이 안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꼭 살펴보니 원래 현대아파트주민들이 원래는 102동과 102동사이에 횡단보도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앞에 바로 월곡동 88번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문제에 안좋다해가지고 횡단보도를 옮겨달라 해가지고 그 횡단보도가 길음역쪽으로 좌측으로 움직이게 된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오다 보니까 좌회전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이동구청장실 나갔을 때 그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당신들은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당신들의 진의가 뭐냐 이것이나 저것이냐를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모임을 가져가지고 보여주시기를 원래의 방향으로 다시 이전해 주기를 원한다, 즉 좌회전이 안되는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LG건설사무소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돈을 내가지고 다시 좀 옮겨라, LG건설이 지금 거기서 북부고속화도로를 만들고 있는 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LG건설하고 경찰청하고 협의중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긍정적으로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일

은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없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횡단보도는 곧 옮겨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이나 직영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지금 안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하3층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만들기전에 동대문 지하주차장하고 세종로 지하주차장을 가봤는데 잘못하면은 지하다보니까 슬러머가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영업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그안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나쁜짓을 하고 있어도 그냥 본체만체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직영을 일단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을 배치하든지 해가지고 특히 지하가 슬러머가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금은 저희들이 지금 환승주차장에 대한 요금은 서울시 주차장설치 관리 조례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0분에 400원을 월40,000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상당히 지금 저렴한 편입니다.

○金順權委員 행정과장, 지금 세계추세가 간소한 정보해가지고 미국같은 경우는 조세미납금 같은 경우도 일반위탁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직영으로 운영한다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도 파견해야 되고 또 두번째는 돈이 오가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오해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시대다보니까 자체의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직영, 모든 것은 과세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발상은 한번쯤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직영한다고 했을 경우는 이것은 구청차원에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사업전체들을 총괄하는 하나 과를 만들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야지 과차원에서 직영들을 고려한다는 것은 문제이지 않나 이런생각입니다.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그것은 연구검토하면 됩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鄭昌萬委員 위원장!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

다.

○委員長 李鍊炯 네, 정창만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세요.

○鄭昌萬委員 지금 현재 버스업체 있죠?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예.

○鄭昌萬委員 버스업체 차고지는 지금 현재 버스배차하고 가는 마당있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예, 예.

○鄭昌萬委員 그것 전체를 정비와 세차하는 그 부분 전체를 갖다가 차고지로 붙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한개당 몇 m의 차고지로 인정해 주시는지 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시내버스에는

○鄭昌萬委員 하나 더, 하나 더 이왕에 하는거. 지금 경정비업소에 카센타 있지 않습니까? 카센타가 지금 자료에 보면은 한54건이 있습니다. 이것말고도 비업소 지금 허가 안내고 있는 장소가 무척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정비업소에서 엔진오일이라든지 기름물 같은 것을 하수구에 버려가지고요, 한강에 오염의 주범이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인도 보도를 점령하고 있어서 지고서 사람이 다니지 못해요. 진짜 어떤때 보면은 이러한 불편한 보도와 이 보도블럭이 엉망입니다. 그쪽 카센타있는 주변에는 이런 대책은 과연 어떻게 정비를 했으며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인허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시내버스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은 26인승이상 대형은 36에서 40㎡를 지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번째 물어보신 것 중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지금 우리는 차고지가 4개 회사가 있습니다. 대진, 도원, 동양, 상진4개 회사가 있는데 이 4개회사가 정비업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한해서는 이것을 차고면적에 넣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鄭昌萬委員 사업소 정비하는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예, 예, 원래 정비

업소면적으로요. 그 다음에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전체 봄에 일괄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마을 버스에 대해서 전부 차고지 검열을 나갔는데 그때 시내버스도 상당히 그때 좀 저희들이 타격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장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면적은 맞습니다. 면적은 저희들이 보니까 또 맞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에 대해서 자기들이 차를 집어 넣었을 때는 차를 이렇게 자기 차고지 면적안에 다 넣었을 때는 사람이 차위에 올라가 가지고 차를 건네받고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뽁뽁히 집어 넣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저희쪽이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면적만 지금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꾸 차를 밖으로 빼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화재가 나면은 전차량에 대해서 화재가 전부 번져가지고 전차량이 소멸될 염려가 있다 그런 어려움을 토론했다는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 업자한테 말한 것은 그러면은 차고지면적을 법정 최소한이 아니라 좀더 면적을 늘려라 지금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업체 특히 석관동에 있는 상진운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기로 밖으로 계속 차를 야간주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뿐만 아니라 상진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고지 단속을 대해서요.

○鄭昌萬委員 그러면 차고지 지금 현재 차고면적을 갖다가 배차하는 데 까지 전부한다고 그랬는데 버스회사를 보면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건물은 뻐 나머지입니다.

○鄭昌萬委員 건물은 뻐 나머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빼고 나머지 이 m가 여기 지금 나온것이 건물빼고 자료에 나온 것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예, 예.

○委員長 李鍊炯 자료에 나온것이?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정비업이 있지 않습

니까? 정비업 할려면은 시설 같은 것도 정비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만 차고면적에 넣는다는 이겁니다.

○鄭昌萬委員 정비하는 면적을.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예를 들어서 기사들 휴게실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것은 차고에서 다 제외가 됩니다. 면적에서요.

○鄭昌萬委員 네, 알았습니다.

○羅光洙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鍊炯 그러니까.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경정비업소.

○委員長 李鍊炯 보충질의입니까?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아니, 정창만위원님 질의답변 안끝났어요.

○鄭昌萬委員 네, 그것 마저해 주시죠.

○委員長 李鍊炯 네, 답변해 주세요.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네, 위원님 질의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정비업소는 254개가 있습니다. 그 경정비업소가 이제 자유업이기 때문에 자유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구조물이나 위원님 질문하신대로 엉망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이걸 제도권 안에 있는 허가업소나 등록업소나 신고업소를 하기위해서 지금 법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되는 것을 보면은 서울 지역은 정비장소가 10평 서울시 아닌 대도시에는 20평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카센타 서울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 카센타를 왕왕 보면은 자기 정비물건 싸놓고 정비부품 싸놓고 이런것이 서너평 그러면 도로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비업소가 자유업이기 때문에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건설교통부에서도 제도권 안에 두어가지고 1년에 1회든 2회든 정비업소를 발급해서 지금 제도권에 지금 넣으려고 이렇게 법을 제정중에 있고 그 다음에 엔진오일가속 단속은 무단 자유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시민복지위원회에서도 아미 엔진오일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경과에서 엔진오일(...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과에서 왔다) 이런 이유가 돼야됩니다. 나올려면 그것이 안 나오면은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환경과에서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

다.

○鄭昌萬委員 그런데 말이죠. 이 카센타에서는 자유업이라고 그러시고 원래 한다면 10명정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명단까지 254개 업소가 여기들어와 있는데 그 이외 또 있겠죠. 이게 자유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단속을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시정을 하고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방치만해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그래서 우리가

○鄭昌萬委員 그럼 방치해 놓고 단속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아니죠, 그런데요. 우리가 경정비업소에서 두가지로 봐, 우리는 도로 관계 그 앞에 불법주차로서 정비하는 건 우리 단속원들한테 보면은 불법주차로서 우리 간판에 그이상은 4만원 승합차 같은 것은 5만원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경정비업소에 자유업소에서 이제 정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식1급 정비업에서 할 수 있는 정비업을 무허가 정비행위로 즉 허가난 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경우에 금년에 적발된 것이 32건이 적발돼가지고 처벌한적이 있습니다.

○柳興先委員 보충질의입니다.

○李承魯委員 질의 마치시고 한번...

○柳興先委員 정비카센타 보충질의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柳興先委員 지금 지도과장 답변이 성실치 않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이 카센타 정비를 하되 애당초 노상에다 정비를 할 것 같으면 아예 못하게 문을 닫아버리라고 이말입니다. 왜 노상에 놔두고 보도블럭에 기름을 떨어 뜨려요. 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복잡한 피해를 줘니까? 당초에 못하게 만들어야죠. 그것을 안그래요? 공간이 부족을 쟁기고 차를 넣어서 정비를 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해주고 부족은 팔아 먹으려니까 진열하고 부족은 분실할까 겁이 나니까 안에 진열하고 차는 보도블럭에 놓고 인도에 놓고 차를 고친다? 도로에 놓고 차를 고친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죠.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즉 말하면은 자동

차 얻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한다면은 앞으로 그 공간을 확보한 그런 카센타만 해주고 그렇지 않고 인도에 차를 놔두고 수리를 한다면은 그것은 계속적으로 벌과금이라도 부과시켜서 그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단속을 지금 못한다는게 말이 될 말입니까? 그것 그런 답변은 안해야죠.

○鄭昌萬委員 앞으로 이제 이유없이 허가가 된단니까 다행인데 이제 안으로 넣어서 하 게끔 지도를 해주시고 좀 해주세요.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네, 네.

○鄭昌萬委員 없는 사람이 먹고 산다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단속할 것은 해서 지도체제를...

○丘在永委員 위원장님 제다 답변좀...

○委員長 李鍊炯 예,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丘在永委員 아니, 그것뿐 아니라 위원장님 또 정비업소 있지 않습니까? 정비업소 자기 문앞에 하는 것도 좋은데 차선을 그어 놔다고요.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할 수 있게 차선을 그어 놔는데 자기집 앞이라고 차를 못세우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업무를 보기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땅 있는데 차를 세우면은 어느새 와서 딱지를 붙여 버리는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집앞에 차선이 그어진게 있어요. 경정비업소 가보면 여기 종암동쪽에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가 문제가 더 되는거예요. 자기 집안에 차선도 안그어 놓고 물론 길을 표시하는 것도 잘못됐지만은 딱 차선을 그었는데 우리가 가서 차좀 세워놔야 되겠는데 자기집 앞이라고 금방 차가 들어와서 정비해야 되는데 차 못세웁니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는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가 문제고 폐유는 아까 어떤분이 말씀하시는데 환경과에서 늦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으면은 거기에 연관해서 그 자료를 이리, 이렇게해서 폐유는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어야지 우리가 그것 환경과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에 행정이나 시민복지 이런데가서 또 질의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우리가 다음해에 이런 질의가 왔을 때

는 같이 좀 곁들여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羅光洙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나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羅光洙委員 우리가 지금 회의를 1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2시35분입니다. 1시간 정도 하고 나면은 10분씩 정회했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

○委員長 李鍊炯 그러니까 세분의 질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보충질의를 하다보니까 그게 그렇게 됐는데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해주셔야지 너무 장황하게 대담식으로 하다보니까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질의도 해주시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羅光洙委員 그래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金順權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鍊炯 이 답변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金順權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鍊炯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順權委員 건설국장! 문서검증을 하기 위해서 문서 제출을 요구한지 1시간반이 넘었는데 왜 문서제출을 안합니까?

○委員長 李鍊炯 그리고 김순권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金雲熙 예, 허동익위원님이 질문하신 현대아파트앞에 그 램프로 인한 주민 민원 대책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承魯委員 위원장, 오늘은 우리 그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교통행정, 지도, 건설관리과만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업무가 다른 내일보다 더 많습니다. 많고 또 오늘 아까 업무보고 하느라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으니까 오늘은 오늘분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아까 그 토목과소관은 내일이니까

○鄭昌萬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

다. 이왕 질의했으니 그 답변만 듣고

○委員長 李鍊炯 아니, 토목과는 내일입니다.

○鄭昌萬委員 질의한 답변 아닙니까?

○李承魯委員 아, 질의한 답변에...

○委員長 李鍊炯 그러니까 그것은...

○鄭昌萬委員 답변, 그거나 듣고

○委員長 李鍊炯 그것은 내일 답변을 들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李承魯委員 오늘은 오늘 분야만 해요.

○土木課長 金雲熙 내일 그럼 별도 질문 안하셔도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이승로위원님께서 하천점용료 징수율이 도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와 그 다음에 시수입보다 구수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 그리고 징수율은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의미으로써 포상금지급 실적 그 다음에 하천이 점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제시해 달라는 그런한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점용료와 도로점용료 그 부과대상은 이렇게 나누어 집니다. 지금 하천이라고 했는데 단순한 하천 지금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하천뿐만아니고 하천기능을 상실한 그 하천부지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황도로뿐만아니라 그 도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아니한 그 도로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부분은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시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0m 미만의 도로는 구수입으로 이제 잡고 있는데, 그 하천보다 그 도로가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지금 도로상에 매설돼 있는 그 통신관이라든지 전력구, 가스관 이런 점용료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통신관이나 전력구 가스관 이것을 그 점용료에 대한 납부주체가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그 체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높고요.

두번째로 시수입보다 구수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큰 여러가지 그 저조한 이유가 있겠습니까마는 큰 틀로 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m 이상의 도로상에 공동구라든가 통신구, 전력구, 가스관 등이 많이 현재 배치돼있고 또 그 20m미만의 이면도로에 있는 점유물은 상대적으로 영업용이든 주거용이든 좀 가난한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수를 할 때는 시수입이나 구수입 이걸 다 구분을 해가지고 시수입은 더 독촉을 많이하고 뭐 구수입은 적게하고 이런 차별을 두고 저희들이 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바로 이제 그러한 사유때문에 약간의 정수율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보다 심층적으로 저희들은 앞으로 이제 관리를 하겠습니까마는 대략적으로 지금 그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한 사항은 지금 총12만 8,000원을 지금 저희들이 정수한 것으로 아니, 포상금을 준 것으로 지금 돼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2억정도의 그 신규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포상금을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이 점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항목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그 지금 우리구 관내에 하천 점유집단지로서 월곡동하고 그 다음에 정릉천변 그 정릉천 정릉동 이쪽이 집단적인 무허가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에 그 무허가 점유자들이 상당히 남부를 좀 안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하천가 삼선상가 아파트 그것은 하천구조물 복개구조물 그위에 들어가있는 아파트 입니다마는 이런쪽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하천에 점유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내에 설치돼있는 현장사무실 즉 말하면 정릉천변에 북부도시고속도로 현장사무소라든지 그리고 지하철공사 현장사무실이 점유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金甲濟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예, 좀 주세요.

○金甲濟委員 아니, 의사진행발언 바랍니다.

아니 지금 내가 뭘 물어볼려는게 아니라
○委員長 李鍊炯 네. 김갑제위원장님.

○金甲濟委員 이왕에 저기 저 토목과하고 하수과는 오늘은 안된다고 한다면 행정수요를 생각해서라도 가서서 일을 하시게하고 내일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들도 계시고 계장님들도 많이 계신데...

○委員長 李鍊炯 네, 토목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은 여기 안계셔도 됩니다.

○金甲濟委員 예, 예. 그렇게 해주셔야죠.

○柳興先委員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데

○金甲濟委員 뭐 인력낭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李承魯委員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이승로위원장님

○李承魯委員 아까 그 포상금이 정확한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또 예산잡혀 있는 것.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아, 지금 예산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 실적을 지금 우리가 지급한 실적을 지금 12만 8,000원 금년도에 지출한 실적이

○李承魯委員 금년도?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예.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李承魯委員 그러면 잠깐 들어보세요.

포상금지급이 451만 9,000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소급해서 지급한 내용입니까? 제가 어느 자료에서 지금 뽑아왔는데,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지금 이제 금년도 우리 구비로써는 지금 저희들이 포상금지급 실적이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시비로 저희들이 12만 8,000원을 요청해 가지고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李承魯委員 금년도거

예. 다시 제가 확인을 하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예. 더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보충질의입니까?

○文京周委員 예. 보충질의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예, 문경주위원장님.

○文京周委員 예, 버스주차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장님입니다. 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버스차고지 현황

이 대진운수, 동양교통, 도원교통, 상진운수 4군데가 있는데 상진운수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네

○文京周委員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1대당 그...

○委員長 李鍊垈 마이크를 앞에 대고 바짝 대고 하세요.

○文京周委員 36내지 40평방m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계산방법이 면허대수에서 한해서 합니까? 보유대수에 기준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보유대수로 보시면 됩니다.

○文京周委員 보유대수죠?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그 4개회사중에서 도원교통만 약176㎡가 부족해서 4대 반 정도의 그 주차량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회사는 현재 하등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교통과장님은 상진운수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거 계산해 보셨나요?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계산은 지금 아직 못해봤습니다.

○文京周委員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도원교통만 176평방㎡가 부족합니다. 제 계산이 맞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예, 예.

○文京周委員 맞죠? 그런데 어떻게 상진운수회사는 용적률이 맞는데 어떻게 거기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는지, 아니면 일단 그 현재 전체적인 그 면적을 도로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현재 여기 나와있는 그 자료를 본다고 하면 도원교통만이 문제가 있습니다.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계산을 해보니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남습니다. 남고요, 상진운수가 좀 빠빠, 남기는 남는데 좀 빠빠하게 돼있고요. 68에서 40을 곱해 보니까요.

○鄭昌萬委員 뭐냐면 건축비율하고 다 이 안에 있을텐데 전체 면적을 보면 다 나오고 건축면적만 빼면 이게 모자라는 숫자죠. 그러니까 전체의 면적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보류해 놓은건데,

○文京周委員 예, 다시 확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垈 네. 질의하실분 안계시죠?

○鄭昌萬委員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분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時48分 監査中止)

(15時11分 監査繼續)

○委員長 李鍊垈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鍊垈 예. 나광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羅光洙委員 교통과에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월곡1동 생명의 전화앞에 갑자기 원형처럼 화단같이 만들어 가지고 교통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어떠한 예산에서 그것을 만들었는지, 예산의 항목을 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 자료번호 48번 주정차과태료 징수부과징수실태와 사용내용 이렇게 해 가지고 부과현황에 보면은 징수액이 현년도에는 건수는 10,975건에 6억7천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과년도에는 195,405 이래 가지고 59억26백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현년도에는 엄청나게 징수와 건수가 떨어져있고 뿐 만 아니라 사용내용을 보면은 94년도에 보상금을 94년도에는 3,249만9,000원을 보상비로 줬는데 금년에는 1억1,799만6,000원 약8천만원을 더 보상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렇다면 징수액과 건수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뒤떨어져는데 보상금은 네 곱을 더 지급을 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鍊垈 예. 정창만 위원님.

○金甲濟委員 자료가 몇 번입니까?

○委員長 李鍊垈 48번입니다.

○羅光洙委員 48쪽입니다. 자료번호요.

○鄭昌萬委員 건설관리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18번에 보면은 재래시장 골목도로 무단점유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 결과에 보면은 정비에 대한 것이 계가 688인데 정비한 단속한 실적을 보면은 5,133건입니다. 노점상이 정비대상 105이고 노점상

실적은 단속실적인 것은 499 또 적치물은 대상이 583에서 처리한 실적 단속처리 한 것은 4,684건입니다. 근 10배가 증가한 것을 단속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옆에 보면은 소방도로 확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 도로가 기본도시계획도로가 얼마가 돼있는데 지금 확보되었다는 것이 3.5m 내지 8m 쪽 내려가다 보면은 3.5m 4m 이렇게 돼있는데 기본도시계획도로는 어떻게 돼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향후계획을 보면은 91년도 6월1일부터 장기집단노점상 관리계획에 의하여 관내 재래상 13개소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을 부과코자 95년도 11월 현재 무단점용자 일제 조사중에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행정감사 그 실적을 보면 말이죠, 거기에 보면은 부당이득금과 같은 과태료를 실시해서 빨리 시정 완료했다고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제와서 또 무단점용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지에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鍊炯 예 문경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文京周委員 문경주 위원입니다.

삼선동 5가 409번지.

○委員長 李鍊炯 자료NO를 얘기해 주세요.

○文京周委員 자료NO. 37번입니다. 삼선동 5가 409번지 북개천 하천부지상 주차장 공개경쟁 입찰계약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계약기간이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없고 또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 사본을 교통지도과 과장님한테 부탁 하겠습니다. 좀 갖다주세요.

○金甲濟委員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예. 한분만 더 받고 할까요? 김갑제 위원님.

○金甲濟委員 자료 번호 42번입니다. 사실 비슷한건데 나는 다른 차원에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불법주차단속현황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비하면 약70%가 건수가 감소된 것 같습니다.

다. 이게 대단히 바람직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5분주차예고제 또는 아마 우리주민들이 홍보에서 협조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내가 지금 얘기 하는 것은 과년도는 부과했다가 징수못한 징수액이 66.6%고 금년은 37.6%인데 이렇게 보면은 율적으로는 또 월 40. 몇 %가 되었나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거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가지 덧붙이자면은 어떻든지 간에 이 징수율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柳興先委員 예.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 해주세요. 답변준비 됐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예. 교통행정과장이 나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곡동에 지금 생명의 전화앞에 교차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통선을 두 개 만들고 그 안에 지금 가로등을 지금 설치 오늘중에 가로등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예산 내역은 올 연초에 저희들 추경으로 해 가지고 교통소통 문제지점 개선 1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잡은 것이.

그래가지고 1대때 위원님들께서 7천만원을 추경으로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소통 문제지점에서 14개소를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월곡동 생명의 전화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교통소통정책 특히 월곡동 생명의 전화앞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이 됐었나면은 저희 지금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교통공학을 전공을 한 석사학위 출신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3명이 있는데 이사람들이 그 자리를 그쪽에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왜냐면은 그쪽이 지금 애매하게 돼있습니다.

월제로 쪽 나가면 화랑로 사거리도 아니고 삼거리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있어 가지고 상당히 차량이 직각으로 상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문인끼리 최초의 초안을 잡았었고 그 초안을 잡은 것 가지고 경찰청에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경찰청에서 원래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

에. 그래서 경찰청에 어떤 협의를 받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해도 좋다, 그래서 낫았고 그다음에 공사할 때 경찰청에서 같이 와 가지고 자리잡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물론 거기가 해 놓고 보니까 약간의 상충지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최소한 교통의 어떤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려고 해 가지고 나온 안이 바로 그 두 가지 두 개 교통선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羅光洙委員 여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委員長 李鍊炯 예. 나광수 위원님.

지금 제가 대충 약도를 그려봤습니다. 거기가 이와 같은 형태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밤나무골시장에서 나오는 차가 이쪽 공릉외대쪽으로 들어갈려면은 이 화단사이로 돌아야 될겁니다.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예.

○羅光洙委員 화단사이로 돌고 이차는 바로 이렇게 우회전 되고 또 여기서 온 차도, 그러니까 화랑로에서 들어온 차는 여기서 이렇게 화단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할 겁니다. 또 여기 차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단자체를 조금더 줄여 가지고 차가 충분하게 이 사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좁습니다.

나도 운전에 대해서는 좀 일가견있긴 하지만은 밤에 운전할 때 보면은 이게 분명히 비가 오고 어두울 때는 이 화단 경계석 이걸 딱 깔아놓개고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더 허야 될 것 같고 또 표시를 이왕 그렇게 했다면은 또 페인트로 갖다가 표시를 해 줘야 될겁니다. 방향표시를.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예. 예.

○羅光洙委員 그렇게 시정조치 해주기를 바라고 또 예산을 거기에서 했다고 하니까 예산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여기 화살표를 해서 방향표시를 제대로 해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을 좀 짜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야간에 차량이 돌 때 이교통선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어떤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쪽 가운데 하고 이쪽으로 해 가지고 가로등 두개가 설치가 돼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안전지대라든가 안전지대 그다음에 차선은 지금 경찰청이 곧 12월중에 그려 나갈겁니다. 그리고 이 교통선 뒤로 해 가지고 노란 황색으로 해 가지고 좀 그렇게 경계안전표시를.

○羅光洙委員 그사이가 좀더라니까요.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이쪽이요?

○羅光洙委員 예. 그사이가. 됐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예. 답변 됐습니까?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예. 나광수 위원님이 두번째 질문하신 48번 주정차부과사용 내역이 현년도는 6억7천 과년도는 59억 2,600은 이거는 우리가 금년도에 59억 2,600을 다 받았다는게 아니라 이 불법주차과년도분을 90년 11월부터 우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쪽 작년도 것을 과년도도 전년도 94년도 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지마는 금년에 그러면 과년도는 얼마나 받았느냐 하면은 5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羅光洙委員 과년도예요?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예. 아니 그러니까 금년.

○羅光洙委員 작년도, 작년도께 얼마예요? 그러면.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아니죠 작년도 것으로 나눌려면은 그자료를 많이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년도하고 그러면은 90년도 11월부터 94년도 12월 말까지를 과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것은 누적된 5년치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에 보면은 보상금이 그외 3,200만원이 작년 예산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1,700만원이 됐느냐, 이것은 우리가 전인업무가 작년에는 시청에서 추진하다가 이게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인대행비용이라는 것이 9,36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9,360만원이 전인대행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상 그 차이를 보면 작년도보다 보상금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전인되어 오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차가 전인될 때에는 한대 전인되면 불법주차과태료 4만원은 자동으로 내고 그다음에 3만원은 전인비용 그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부과되는데 1,000원, 2,000원 이런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인당한 사람은 보관대에서 30분당 또 500원씩 별도요금도 또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불법주차도 5분 이내 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알지만은 전인업무가 금년에 우리 구청에서는 많이 줄었는데 이 전인을 경찰서장도 할 수 있게돼 있기 때문에 경찰서 전인업무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전인을 하더라도 그 전인해 간 사람은 자동적으로 불법주차가 되는 것은 아직은 체납이 한건도 없습니다. 끌려 갔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고지서가 나오면 바로 끊겨지고 우리 구수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했기 때문에 전인이 금년에 굉장히 증가했지 우리 구청에서는 전인이 작년에 보다 지금 30% 정도가 감소해서 전인을 했습니다.

○羅光洙委員 아니, 그러니까 보상금을 보상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갔나 이 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보상금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나하면 전인대형 9,36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금년부터 작년에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羅光洙委員 그렇다면은 다시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예.

○羅光洙委員 조금전에 지금 과년도면은 5년것을 소급해서 전체의 양을 얘기했는데 작년에 특별회계 사무감사할 때에 그때 총액수가 90년도부터 4년동안 했던 것이 49억이었습니다.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예.

○羅光洙委員 49억에서 그때 당시 단속은 16명에서 24억을 썼다고라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은 49억이었으면 올해 과년도에 59억이라면 10억이 작년에는 징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10억이 됐는데 올해는 6억 7,000밖에 안됐다면 3억3천이 작년에 비해서 미달됐다, 이렇게 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이유가

어디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금,

○羅光洙委員 서면답변 하겠습니까?

○委員長 李鍊炯 아니, 징수실적은 낮는데 보상금은 많이 나갔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羅光洙委員 그것은 해명됐고 그것은 어디서 넘어온 것이 있어서 9,000얼마가 넘어온 것이 있어서 그렇다하더라도 작년과 금년에 징수액 과태료부과징수가 작년에는 약10억정도 했어요. 제가 계산상으로 봤을 때 작년 사무감사때 지적된 숫자하고 지금 숫자하고 봤을 때 약10정도 징수하는걸로 보는데 금년에는 6억7천밖에 안됐다 이 말입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차량숫자도 불어났고 단속하는 숫자도 불어났는데 징수액수는 작년보다 훨씬 더 줄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대라는 것입니다. 서면답변 하겠다니까 서면답변으로 대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그러면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그 다음에 문경주위원장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 구청뒤 삼선동 5가 409번지 계약기간 명시를 못해 드렸습니다. 우리 계약서 지금 사본을 보여 드렸는데요. 계약기간이 95년 1월 3일부터 96년 1월 2일까지 1년간이며 면적이 63개분에 대한 842.5㎡입니다.

○文京周委員 예. 계약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여기에 보게되면 인근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야간18시부터 일일 07시까지 주민을 개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은 그 주차장을 활용을 못할뿐더러 무질서 해가지고 우범지역으로 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하나 물어봤는데 입찰할 때 말이죠? 공개경쟁입찰할 때 응찰자에 자격제한을 둘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성북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렇게 지역에 대한 제한을 둘 수는 없나요?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감시체계가 들어와

있는데 자격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자만이라고 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12월이후 감사끝나면서 12월에 우리 행정과장하고 협조를 해서, 그리고 주차장 구조제가 지금 없습니다. 하나 만들어 보면서 바로 위원님 의견같은 것을 검토해 가지고 또 상위법에 저촉을 받는지 상위관서 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러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사실 우리 자치구시대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구 지역주민들만 하는걸로 이렇게 한번 하는데 여러가지로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된다, 안된다는 못하고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文京周委員 네, 제가 두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구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해서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고 이것은 24시간 관리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갑제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과년도 70% 공고에 우리 징수율이 감소된 이유를 아까 나광수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징수율이 낮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과년도 것은 90년 11월부터 94년 11월말까지인데 부과된 것을 90년도 받고 91년도 받고 92년도 받고 이런 총계 징수율 항목에 들어 갔고요.

○金甲濟委員 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보충질의 하세요.

○金甲濟委員 다름아니고 과년도라는 개념이 말이에요. 지난해니까 1년되고 10년도 되긴 되겠습니까마는 90년도부터 94년도면은 5년 아닙니까?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네.

○金甲濟委員 그러면 회계법상입니까?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그렇죠. 재무과에서도 보통 과년도세입과 일반세입도 그 과년도세입까지는,

○金甲濟委員 5년 소급한다,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5년까지를 과년도차

원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년만 지나면은 시효결정에 들어갑니다.

○金甲濟委員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것이 지금 과태료를 안내면 체납 압류를 안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지나야 압류를 하는 것이며 압류후의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네, 압류는 이제 우리 위원님, 그런면은 단속부과부터 부과까지 압력을 하면은 압류는 우리가 일단은 고지서가 일단 발행이 되어가지고 고지서가 보통 한달기간을 줍니다. 넉넉한 기간을, 그러면 우리가 1차 압류독촉장고지서가 또 나옵니다. 그달이후에 그래도 안낼 경우에는 우리가 차량을 압류한다는 예고엽서를 보냅니다. 예고엽서를 그레가지고 우리가 차량압류가 들어 가는데, 차량압류 그 기간이 보통 고지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압류될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5개월에서 8개월까지 평균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자동차압류도 86,870건이 압류가 돼있고요. 부동산 압류가 7백67건 그다음에 지금 바로...이런것 해가지고 압류중 독촉중 있는 것이 4만건이 돼있습니다.

○金甲濟委員 그런데 사후처리 그런것은,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압류된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압류된 사람들이 본인들이 자가용을 일단은 명의변경을 한다든가, 임차한다든가 하면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돈을 내야지만이 압류가 해제되어야지만이 행정쪽에서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압류된 사람을 우리는 자동차만 압류됐다고 끝난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본청의 전산실에서 일괄 서울시 고지서독촉장을 다 찍어 내기 때문에 계속 재차나오는대로 우리가 계속 독려를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금년도에도 작년도분 그 압류됐던 것 이런 것들이 내는것이 아까 우리가 집계된게 5억 6,000만원정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金甲濟委員 우리가 볼 때 면적으로 본다면 그 차량에 행정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때에 처리가 되는거라는 얘기죠.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예, 예.

○金甲濟委員 그런데 아까 예고를 두번째 한다고 하는데 내가 2년전에 내가 경험한 바인데 그렇게 아니던데요. 막바지로 그냥 압류해 버리던데요.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그것은 조금 우리도.

○金甲濟委員 그래서 내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말하자면 오늘날 지방화시대가 됐고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두번은 못하더라도 한번이라도 이해를 하고서 압류하는게 타당할테인데 막바로 압류를 하니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에서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아니고 그렇지 않고 좀더 막바로 압류를 한다면 그런 행정사항은 좀 시정하기 바랍니다.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홍선위원님.

○柳興先委員 아까 제가 질의했던 우리 행정교통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돈암2동에 우리구민회관 앞에 차, 지금 현재 무적차량이 하나있는데 그 차가 버스인데 하얀 도색을해서 그 차가 도대체가 무슨 창고인지 폐차차량인지 누가 보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 말하면은 우리 성북구에서 굵직굵직한 행사는 구민회관에서 다 하는데 우리 성북구민이 거기에서 볼 때 제가 그런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뭐라고하니 성북구민회관 관리를 성북구청에서 한텐데 저런차를 놔두고 여기서 이런식으로 차정비나 하고 차방치해 놓고 된다니 안타까울 일이다 이말입니다. 우리 성북구 구청공무원 관계여러분들이 마치 잠이나 자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빠른시일에 조치하고 그 서면으로 우리구 의회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차 뿐만아니라 아리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차고지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다음은 정창만위원님

께서 세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건설관리과장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골목도로 무단점유 정비대상 이것이 대상 688건으로서 단속실적 보다 적게된 사유가 무엇인가 이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지금 정비를 했는데 현황도로 폭이 얼마인지, 그리고 과태료부과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무단점유 하겠다고한 사항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한 이유가 무엇이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첫번째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비대상이 688건으로서 지금 단속실적은 5,133건으로 표현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단속횟수가 저희들이 183회로서 년 단속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황도로 소방도로 확보수준에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왔었는데 그 시장폭이 얼마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 시장마다 현황도로가 상당히 폭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정비 차원에서 최소한도로 그 시장마다 최소한도로 소방도로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해 왔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도로폭이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鄭昌萬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보충질의입니까?

○鄭昌萬委員 예.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시장안이든 어디든 기본도시계획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鄭昌萬委員 예, 예.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그냥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그런 도로들이 또 있습니다.

○鄭昌萬委員 그러면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 8m면 8m인데 지금 4m만 소방도로로 화재위험으로 인한 소방도로 4m만 확보를 하고 4미터는 지금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그렇습니다.

○鄭昌萬委員 그러면 점유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바로 그것이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한 사항이고,

○鄭昌萬委員 지금 현재하고, 기본도로가 돼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기본도로로 돼있는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인데 7개중에 기본도시계획도로로 돼있는 부분하고 만약에 시장안 같은면은 시장안은 같은 공유지분이니까 어렵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기본도시계획에 있는 부분속에서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10m인데 5m는 쓰고 5m는 지금 도로확보를 해 놔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거예요.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예, 종합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번째 항목하고 결들여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은 약 14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게 허가가 난 시장이든 허가가 나지 않은 시장이든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곳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하면 허가난 시장 허가난 시장은 사유대지이기 때문에 시장내에 통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시장외곽으로서 그 시장이 서 있으므로 인해서 유사하게 그 시장화돼있는 그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사항은 93년도, 94년도 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안결용위원님과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집단노점상, 재래시장에 관한 노점상에 대한 그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우리의 그 노점상에 대한 계획은 방금 집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래시장 부분하고 그걸 저는 유사시장이라고 지금 유사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 집단화

되어 있지 않은 화랑로라든가 미아로 이런 사항들이 나누어 저서 지금 그 대상에 포함돼있는데 집단화되어 있지 않은 곳은 사실은 과태료부과하고 부당이득금도 부과하는 심하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도로상에 적치돼있는 것을 바로 나가서 정비할 때는 바로 정비가 되는 것은 그 현장시정을 해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정비가 안되고 저희들의 행정지도에 대해서 그 거부를 하거나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나 부당이득금을 부과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행정적인 지도나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집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런 재래시장 주변하고 그 인수로주변 뒤편으로도 물론 재래시장 주변으로 저희들이 포함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전혀 행정에서 지금 이 관리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정비대상이다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즉시 정비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권력적으로, 강제적으로 정비만하고 거기에 따라서 점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과태료부과 이것을 사실은 못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 온 그 이때까지의 저희들의 정비실체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도적으로 제도권내에 끌어들여 와 가지고 이제 관리를 차근 차근 하겠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세번째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왜 다른때 과태료부과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무단점유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과태료부과등 시정조치를 하는 곳은 방금 말하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관리해 왔던 이 도로입니다. 무단으로 집단무단으로 점유돼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해 왔었던 것이고 지금 여기서 11월 지금 현재무단점유 일제조사중에 있는 것은 바로 장기무단 집단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鄭昌萬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예. 질의하세요.

○鄭昌萬委員 지금 94년도 행정감사한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어떻게 돼있느냐면 간선도로에 노점상이나 건축물의 정비를 철저히해 주민불편 최소화 대책에 강구하겠다고 해가지고 답변자료가 어떻게 나왔냐하면 시정완료됐다고 그랬습니다. 시조례 공포시행 95년도 1월16일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개노선을 1일2회이상 순찰해서 시정완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시정완료됐다는 것을 이거 95년도 1월 16일서부터 시행을 했다하면 지금 95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11월달에 다시 또 재조사 해가지고서 이제 또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부과해서 무단점유한 사람 이제 일제조사가 나오니 이게 과연 여기껏 부과안하고 그냥 방치만 했던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예. 바로 맞습니다.

○鄭昌萬委員 그러면 행정감사때만 이렇게 자료만 제출해서 시행했다 완료했다 이렇게 해 놓고 또 96년도에 또 가서 행정감사 들어올 때는 또 이런식으로나오면 공무원이 과연 무슨 반성을 하고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단속을 하고 전에 인수조정비같은 데는 우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일일잡부입니까? 일일 용역자입니까?

이렇게해서 지금 한다고 또 그랬는데 과연 할려면 철저히 해야지, 지금 아까부터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자체는 8m인데 지금 4m씩 양쪽에 2m씩 다 차지하고 4m만 소방도로만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과해요.

왜, 만약에 노점상이 왔다갔다 한다면 그 가옥주한테 그 앞에있는 사람들에 왜 그 사람들은 거기서 또 세를 받습니다. 그러한 무단적인 어떤행태도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를 확보를 해놔야 불이났든지 어떠한 긴급한 일이 있을 때 화재차가 들어간다는지 도로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지. 주민의 불편이 뭐 말이 아닙니다. 이게 매년 행정감사나 구정질문에 이게 들어갔던 겁니다. 이런것이 시정이 안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시인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만 해놨다가 또 다시 때되면 행정감사때면 이걸 또 올린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규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보면 94년도 행정감사에 보면 시조례 공포시행령 시행해 가지고 95년도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과태료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완료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식으로 답변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建設局長 李東湜 정창만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국장이 한마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시정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시정완료가 된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거기에 표현한 것은 일단 했기 때문에 시정완료를 한것 같은데 엄밀히 정창만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표현을 하자면 계속 추진중이지, 완료된 건 아닌데

○鄭昌萬委員 그럼 왜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처리결과에 대해서 시정완료라고 해놨습니다. 한번 그걸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러면 지금와서 이게 변명이지. 왜 사탕발림으로 위원한테 행정감사 때는 이렇게 해주고 자료제출할 때는 그러니까 안된다 이 겁니까?

○建設局長 李東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사과말씀드리고 그런 시각으로 보면 계속 추진중인데 일단 그 몇 번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된 거고 또 아시다시피 노점상이나 이런것은 단속하면 또 파리쫓듯이 다시 오는건데 그점을 표현이 잘못된 걸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계속 매년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9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릴적에 맨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권력적이고 그런 저기를 갖다가 재정적통제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단계적으로 상대하던 것을 개별적으로 상대해

가지고 부담금을 물려서 세입도 증대화시키면서 준법정신을 계도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서 특별히 청장의 결재를 받아놓은 안도 있습니다.

○鄭昌萬委員 이걸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 예를 들어서 8m도로인데 양쪽에서 2m씩 2m씩 점용을 했었을 경우에 부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부과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建設局長 李東湜 예. 제가 하여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수로같은데 지금 골목길이 지금 굉장히 긴데 저희가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쪽에다 현선을 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더라도 그 저 현선까지는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꾸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파라솔도 치고 무엇도 치고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것도 효과를 많이보고 있는건데 우리 가로단속원들이 가서 얘기를 좀 하면 자율계도 요원들이 와서 집어넣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율계도로 그 표현을 했고 절대로 그 현선은 나오지 않도록 현색선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사실상은 그게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용료나 부담금은 카드화해가지고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서 지금 신청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동별로,

○鄭昌萬委員 전부 신청서를 받는다구요? 그러면 금년에는 꼭 96년도에 들어가서는 이걸해서 꼭 시행을 하세요. 감사자료에서 이렇게 나오게 해놓고 시행한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제 조사한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부과해주시고 이게 제일문전에 시정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거 골목길같은 데 이렇게 상권이 없는 사람이 장사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참

콘크리트건물이라든지 그것은 몰라도 고향집이나 이렇게 나무로 지은집 같은데들집이 지금 한국에도 많지 않습니까? 화재가 났을 때 4m도로 같은데 과연 그 많은 인명피해를 가서 누가할거냐 이겁니다. 여기는 소방서를 두고서 도로를 정비를 한다고 그러지만 형식에 한달에 한번씩 해봐야 무슨 소용있습니까? 또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인명피해 우리 상품상가같은 그런 시장과 같은 그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좀 섭섭하더라도 관리해서 정돈을 해 놓으므로써 주민들이 편안히 잠을 자고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建設局長 李東湜 예. 알겠습니다.

○鄭昌萬委員 이런 것은 꼭 시정을 하셔야 하고 해야지 자꾸 이렇게 뭐 올적마다 자꾸 시정한다 뭐 한다 얘기하지마시고 부과하든지 정안되면 집주인에게 하세요. 그 앞에 그 앞에 있는 노점상이라든지 적치물 쌓는데라든지

○建設局長 李東湜 그것도 우리가 돈받는 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넘겨짚어가지고 그렇게 부과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참 실질적으로...

○鄭昌萬委員 현장조사를 하십시오. 현장조사를 해 보지도 않고 행정숙에서 앉아서 있으니까 그걸 몰라서 그래요.

○丘在永委員 정위원님!

○鄭昌萬委員 지금 나가 보십시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李東湜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좀 계세요. 좀 계세요.

보충질의 입니까?

○丘在永委員 예.

○委員長 李鍊炯 예, 구재영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丘在永委員 정창만동료위원께서 아마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제가 꼭 짚어 줄 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상월곡동 그 동사무소 앞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바로 옆에 조금 지나면 세차장이 있죠? 세차장 바로 옆에 판넬공장이 있습니다. 판넬, 세를 놓는데 그런데 그 지하철 공사를 하다보면 조금 동사무소에서 한 50m내려 가면 상월곡동 24번지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를 딱 낮게보면 동사무소 바로 옆에 어린이놀이터로 들어가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걸 딱 막아놓으면 그리 드나들어야 되는데 판넬공장이 그 나무도 적치해 놓고 바로 노인정옆에 아시겠조?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네.

○丘在永委員 나무도 적치해 놓고 뭐 판넬도 놓고했기 때문에 이제 저쪽 24번지 진입로가 팔렸을 때는 뭐 그런 대로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네사람이니까. 그런데 냉정히 판단해서 거기를 딱 막아놓고 공사를 할 때는 오고갈데가 없어요. 차가. 한 대 딱 들어오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빠꾸해야 되고 이쪽에서 차가 들어갈려면 저쪽에서 빠꾸해야 되고 그런 형평성이 있고 그게 아마 관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떻게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라고는 못하겠고, 거기에 대한 조사만 철저히해서 거기에 대한 그 저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뿐 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네. 시정하겠습니다.

○丘在永委員 이렇게 무슨 박스같은 거 쪽 놓고 이제 그 상점앞에는 물론 어떤 사고가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는 빨리 치울수가 있는데, 그런데는 사람이 없을 때는 전혀 치울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는 빨리 시정하는 것이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垌 네. 이승로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李承魯委員 이승로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하수 아니 도로하천점용료 징수미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부분인데 그 포상금 과년도 우리 건설관리과에도 과년도를 94년도를 말합니까?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예, 그렇습니다.

○李承魯委員 예. 과년도 포상금이 지금 그게 안 나와 있조?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예.

○李承魯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1만 9,000원입니다.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예산액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책정돼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李承魯委員 400,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00.

○李承魯委員 과년도 미수금을 금년에 지불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아, 포상금은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체납돼있는 도로점용료, 또는 하천점용료에 대해서 그 징수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그 징수공무원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입니다.

○李承魯委員 그러니까 451만 9,000원이 96년도 결산설명서를 보니까 451만 9,000원이 올라왔는데 과년에 지금 계속 미납된 걸 그걸 징수를 했을때 포상금으로 해 줬다는 그 얘기 입니까?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아니 94년도 결산서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李承魯委員 그럼 451만 9,000원이라는 것은 무슨 돈입니까? 포상금에 대한 451만 9,000원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그자료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챙겨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承魯委員 예.

○委員長 李鍊垌 예.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서위원님. 아니 김영기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金鈴基委員 하천구거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垌 예. 질의해 주세요.

○金鈴基委員 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 제가 이걸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로하천 구거단속 및 과태료부과현황을 볼 것 같으면 단속현황은 26,424건인데 과태료부과는 246건에 불과합니다.

그게 말로만 단속이지. 행정제재인 과태료 부과실적은 극히 미약하고 있으니 말이죠. 업무를 이렇게 소홀히 방조했다고 생각하는 데, 거기에 좀 공익요원이 주차단속을 요즈

음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절하기 위해서 투입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관리는 지금 행정청에서 걱정한 이게 가장 좋은 단속이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제한적으로, 실제로 무식하게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대책도 없이, 단속을 하고 나오면은 또다시 발생하는 단속과 발생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그 단속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 마다 다 저희들이 엄격한 법적용을 해서 고발을 하고 또 시행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경직되는 이런 행정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시정조치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통행에 또는 우리 하천관리하는 미관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시는 지금 질의사항 9쪽.

○金鈴基委員 9쪽, 9쪽.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예. 9쪽을 말씀하신 것으로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사항은 아주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시정요구를 했을 때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들과 차별적으로 부당이득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공익근무요원은 참고로.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예. 말씀하세요.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말씀드리면 우리공익근무요원은 이제 그용도가 현재는 공원관리 환경관리등급수용소관리 또 환경업소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요. 이게 국무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현재 구청장님도 협의에 의해서 그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구청장이 마음대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해 갖고 건의가 승인이 되어서 지금 준공되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돼있는

데 만약에 도로관리로서 지금 위원님처럼 그런다면은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요청을 필요한 인원을 해 가지고 그인원이 국방부에 통과되서 국방부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순서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鈴基委員 그런데 그 단속현황은 26,624건인데 실제 단속은 246건 너무나 저조한 실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법적상 문제가 있습니까? 그제.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아니 위원님 우리 노점상 단속하는데 관리하는데 이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점상하고 여기 노점상이라는 것은 지금 각 이면도로상에 나와있는 리어카꾼이라든지 야간의 포장마차하는거 그다음에 좌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적취물은 도로상에 거꾸집이라든지 또 토사 나와있는 것 또 그다음에 벽 집허물고 그잔재 이런 사항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단속을 딱 투입되면 리어카꾼같은 경우는 그냥 다시 가버립니다. 가버리면 그 사람한테 이제 이 과태료라든가 점용료부과 이것을 잡아가고 부과할 수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그 다음에 건축자재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하게 됩니다마는 그냥 조금 무더기로 쌓여있는 것을 단속나갔을 때 주인이 그냥 치워버리면 그것을 현장시정으로서 처리를 해 버리지 그것을 잡아다가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단속 26,624건이 이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그러한 건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나 부당이득금 부과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지도의 전혀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장기간 방치해 놓고 앉아 있을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부득불 전형적인 통제로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金鈴基委員 문제점이 많이 있군요?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예.

○金鈴基委員 이해 하겠습니까.

○委員長 李鍊炯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입니까? 문경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文京周委員 지금 김영기 위원이 질의하신 그자료하고 자료번호 23번하고의 노점상에 대한 차이점 여기 보면은 23번 자료에 보면은 기존 노점상이 253개인데 단속실적이 22개소입니다. 그런데 신재발생 노점상이 3,345개로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예. 예.

○李承魯委員 추가로 한가지만 더 같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委員長 李鍊炯 예. 이승로 위원님. 질의 하세요.

○李承魯委員 예. 이승로 위원입니다. 관리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 아까 재래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점유한 부분에 앞으로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징수하는 그 공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예.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먼저 문경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이 지금 기존253개소라고 돼있습니다. 이것하고 저희들이 앞쪽에서 말하는 많은 노점상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나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여기서 기존으로 관리되고 있는 노점상은 과거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안된 그 시점에서 89년도인가요? 그시기에 이미 노점상 정비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가판점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제 그리고 가판점내고 구두박스도 하도록 그런 생활보호차원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것도 안되는 사람들은 이제 노점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서울시 전역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구청에서 행정관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구관내에서 25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발생하는 그 노점상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53개소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 묵인이나 허용을 해줬지만은 저희들은 지금 그것을 관리를 관리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 노점상을 바로 즉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 노점상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이승로 위원님께서 도로점용료 산출근거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도로점용료는 점용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이 있습니다. 영업용인 경우에는 50/1000을 저희들이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일 경우에는 25/1000을 저희들이 적용하는 일반적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그점용에 따라서 약간의 요율적용하는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李承魯委員 통상적으로 우리 재래시장 이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재래시장은 영업용으로 봐서 요율이 50/1000을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文京周委員 아까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345개소가 신재발생 노점상이었는데 여기에 예산절감 및 노점단속상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2개소 노점단속한데 대한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예. 지금 93년도까지 저희들이 노점상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인수로 지역에 대한 노점상하고,

○文京周委員 94년도 초부터로 돼있는데요?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예.

○文京周委員 94년도 초부터로 돼있는데요?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아니 그러니까 93년도까지는 용역으로 했었는데요. 그용역으로 말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폐단사항을 많이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2억 정도의 용역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94년도부터는 용역으로 주지 말자, 그래가지고 우리 건설관리과에 일용인부를 일용인부예산을 책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 2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지금 현재 약 5천만원 95년도 예산은 약 5,400만원입니다마는 5천만원 정도의 약 1억5천만원 정도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

나 지금이나 큰차가 없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文京周委員 5천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22개소를 차라리 점포를 하나씩 사주는게 낫을것 같은데요. 단속반한테, 이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22개소 단속을 하고 3천3백보 신점포가 발생하더라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네, 앞으로 충분히 지적해 주신점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아까 이승로위원님이 질문하신것...

○李承魯委員 됐습니다. 됐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됐습니까?

○李承魯委員 네.

○委員長 李鍊炯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丘在永委員 네.

○委員長 李鍊炯 보충질의 있습니까?

○丘在永委員 질문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예, 그럼 질의는 조금있다 하시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鍊炯 감사를 잠깐 중지하고 10분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時08分 監査中止)

(16時21分 監査繼續)

○委員長 李鍊炯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기 위원님.

○金鈴基委員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종암로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에 20억을 보상, 추진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는 전구간이 지금 보상이 실시되리라고 믿습니다. 조속히 발체할, 물론 보상이나 공사에 착공시점은 구청에서 업무를 하게 되는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鍊炯 네, 김영기 위원님.

○金鈴基委員 네.

○委員長 李鍊炯 그 보상금관계 말씀하신 겁니까?

○金鈴基委員 네, 그래서 보상과 구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행사항이 상당히 빠른 그런 이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建設局長 李東湜 그것은 건설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좀 계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承魯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이승로위원님.

○李承魯委員 이승로위원입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성북관내에 노상주차장이 길음동에 115대, 성북동에 111대 이렇게 비롯해서 석관동 50대까지 5군데쯤 있는데 전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석관1동 같은 경우는 2급지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내정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5,200만원이 내정가가 정해져 있었어요. 입찰가격이 6,11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보신 관리자께서 주차요금을 주민들한테 전부 터무니 없이 이렇게 고가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은 입지 현지사정 또 주민들의 여론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내정가를 정해야지 만약에 본위원이 보기에 는 월 하여튼 몇백만원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진영호청장께서 오셨는데 말씀드리니까 청장께서도 그것을인정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4월 9일날 재입찰을 하는데 또 전과같이 이것이 상승했으면 했지 따운은 안될거라는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조정이 없는한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과의 민원마찰이 상당히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견인자동차 아까 견인 자동차 비용을 95년도 9,000 몇백만원 아까 지도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에 견인비용이 1억 2,276만원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9,000 얼마밖에 안들어 갔다는 것은 그건 지금 관내경찰서에서 견인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 지정한 데가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견인을 차라리 견인업무를 공개입찰

이런 방법은 안되는지, 민간인한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00년까지 주차공간을 100%를 확보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근거가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서영진위원님.

○徐榮振委員 서영진위원입니다. 차고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걸로 해서는 각 30개동에 차고지를 보면은 주택을 지을 당시에는 차고지를 분명히 냈습니다. 냈는데 준공검사를 딱 떼고나면은 그 이후에는 전부다 점포로 변한것이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복약 95년도에 가서는 용도변경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답변듣고 난 다음에의 다시 질의받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李東湜 먼저 김영기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암로 확장에 있어서 95년도에 20억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96년도에는 61억을 투입해서 보상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왕에 구청에서 설계시공할 것 같으면 그 열의에 따라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어가지고 시민의 편의에 이바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鈴基委員 예, 예.

○建設局長 李東湜 맞습니다. 금년에는 2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보상협의를 진행중이어서 영업권에 대해서는 오늘도 서너건을 협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나가고 있고요. 내년도에 또 전체군에 대한 보상비로서 시에서 61억이 책정해서 배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도로확장공사에 있어서는 종암로에 있어서의 지하철 6호선 지나가는 곳과 또 그 역과 연계해가지고 지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도 고가로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 몇가지 우리만으로 되는게 아니고 본

청 지하철과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해서 설계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단독으로서 설계는 부와 협의해서 설계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단독으로서 설계는 할 수 없고 상급기관과 전부 협의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빨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시에서도 그것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괄해서 61억이라는 예산을 전부 내려주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金鈴基委員 네,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하철공사와 이제 지금 현재 그위로 그래도 그 좁은 길에 종암로가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建設局長 李東湜 네, 네.

○金鈴基委員 그러니 기왕이면 빨리 보상이 96년도에 이뤄진후 97년도에 빨리 확장공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좀 거기에 지하철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서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성의에 따라서 조금 더 빨라지고 더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다분히 나올수 있는게 아닌가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建設局長 李東湜 네, 성의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委員長 李鍊炯 네.

○金鈴基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예, 다음 이승로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이승로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가는 지금 서울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도로점용료 수준에 의해서는 지금 예정가를 정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기간. 기간은 지금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과 곱하기 효율인데 효율은 0.05로 지금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예정가가 높아가지고 계속 유찰사태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국민학교 앞에서 세번이나 유찰이 된 그런 경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다른 일이 있더라도 시청에 갈 일이 있으면 항상 주차계장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양반하고 같이 여러가지 정책적인 협의도 같이하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율을 0.05로 할 것이 아니라 0.02까지 즉 0.05에서 0.02까지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예정가를 낮추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법안심의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가요. 요금은 지금 현재 2급지는 30분당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금도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급지하고 2급지를 낮추도록, 낮추어 가지고 어느정도 폭을 쥐가지고 자치구에서 알아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30분당으로 정해져 있는데 시간을 세분해가지고 15분으로 지금 세분화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2분정도면 일을 볼 수가 있는데, 30분 요금을 내야되니까 불합리하니까 15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노상 주차장이 월정기권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월 정기권을 지금 주차장업자들이 주민들한테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조례는 개정될 서울시 조례는 지금 월정기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아까 지도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에 관련된 주차장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내년초에 구조례로 해가지고 저희 상황 어느정도 서울시 조례와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 구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례를 개정을 하나 신설하려고 그러니까. 또는 주차장확보 문제에 있어서 100%가 과연 가능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구역선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6천대정도가 됩니다. 지금 6천대 되고 있는데, 이 주차구역선을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증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가 3.5m가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3.5m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그어주고 그 다음에 일방통행로를 지금 확보시키려고 합니다. 계속확장을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없지않아 있는데 왜냐하면은 양방통행도 안되는 좁은 길에서 일방통행을 반대하는데 일방통행만 되면은 한쪽을 주차구역선을 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계속 확장하면서 주차구역선을 연차적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그리고 두번째는 학교나 공공시설 이런것을 개방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교회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가지고 올해 약 20곳을 개방을 시켰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개방을 유도하려고 그리고 내년도에 정릉천하고 성북천 복개에 관계된 용역을 발주하려고 그러니까. 1억을 들여가지고요. 그래서 정릉천이나 성북천을 복개를 해가지고 상당수에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 그런데 높이 있는곳이 있습니다. 공원도 높고, 학교도 높고 그러면 그 지하를 파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데 학교는 교육청하고 협의문제도 있고 또 그 학부모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쪽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상주차장을 무리가 있더라도 확대를 시키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벌어들인게 약 2억5천 되는데 내년도는 약 5억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상주차장을 구재정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 시에서 올해는 안됐습니다. 3백억을 주차계과에서 3백억을 경상적사업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각 구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년 예를 들어서 올해도 3백억 내년도 3백억해가지고 각구에 나눠 주는식으로 이렇게 할려고 올해는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속 주차계과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산 지원해주면은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따오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垌 네, 답변됐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서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즉 건축물부설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주택과에서 지금 각 집안에서 용도변경도 문제지만은 차고지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면적이 120㎡ 이상에 이상되는 면적에 한해서 저희들이 차고지 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입법예고 된 게 100㎡ 이상되는 건축물 안에서 지금 차고지를 만들도록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承魯委員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李鍊垌 예, 보충질의 하세요.

○李承魯委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재원확보에 대해서 제가 정책적인 어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예, 예.

○李承魯委員 아까 학교운동장 문제나 공원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 매스컴이나 우리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도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지역적으로 어떤 이야기는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각골목이나 주택에 건물을 짓는데 있어 주차장확보를 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주차장을 100%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주택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놨지만은 거기에 주차를 해놓은 사람은 없어요. 특히 골목쪽에는 거의 100%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축을 한다면 아니면은 개인주택에 어떤 주차장을 필요없이 괜히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것을 건폐율이라고 합니까? 여기에 건축주가 이용하게 해 주고 상대적으로 거기에 따올 세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柳興先委員 보충질의 좀 할까요?

○委員長 李鍊垌 예, 유흥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柳興先委員 지금 각동에 새로 90년도 부

터 신축허가를 낼 때 지금 그 옥내주차장이 많이 있는 걸로압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과연 제대로 활용을 하느냐 하면 활용을 않고 있어요. 물론 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는 그 주차장이 가게로 변하여 가지고 지금 점포로 쓰고 있는 집이 있던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집에서는 점포로 쓰다 걸려가지고 과태료를 엄청나게 물어갖고 즉 말하면 잔뜩 찌푸려져 갖고 있는데 어떤집은 버젓이 점포로 쓰니까 그 집에서 화가 나니까 또 그걸 또 문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동네에서 상당히 발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동네이웃간에서 서로 대립않게 할려면 어떠한 규칙이 있어야되고 벌칙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또 그거를 뭐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용도변경이니 해서 점포로 쓴다 하는 답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국장께서 법령을 잘 아신다고하면 과연 용도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면 애당초부터 아까 우리 동료 이승로위원말 대로 주차장을 차에 안 만들면 될것을 집을 짓고 싶어도 땅은 적은데 주차장을 만들라니까 못짓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데 과연 지어가지고 또 그것이 둔갑을 해서 점포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못 쓰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여론이 어떻게 나오나 동직원이나 구청장한테 잘 보인사람은 점포로 쓰고 잘못 보인 사람은 과태료가 엄청나게 나온다. 지금 현재 동네에서 떠드는 것이 이러한 일이니까 거기에 뭐랄까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면 없든지 있으면 있든지 그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간에 이웃간에 즉 말하면 서로 그 어떠한 이권다툼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물고 뜯는 일이 없게 하려면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드린것입니다.

○委員長 李鍊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에서 전부 다 하고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맡고 있는 것은 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한

테 이용을 제공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혹은 그 사람들이 그 부설주차장을 민영으로 돈받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신고수리 받고 우리가 그 정도로 하고 있지 용도변경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동선1동지역에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그 현장을 뭐 수십번을 나가봤지만 보니까 개인차고지가 상당히 많은데 상점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창고로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게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는지 안 물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주차허가제를 실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주차허가증을 발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서 인원이 딸려가지고 혹은 동사무소에서 인원이 딸려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못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도움을 주는 의미에서 그 용도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과에다가 고발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委員長 李鍊炯 예, 답변되었습니다.

○文京周委員 주차문제에 대해서...

○委員長 李鍊炯 예, 문경주위원님

○文京周委員 건설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에 주차공간확보를 위한 그 방안으로써 보문교하고 보문2교 사이에 개천이 있습니다. 그 개천을 복개를 해 가지고 민영화를 하든 민자를 투자할 하든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건설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해주시죠.

○建設局長 李東湜 문경주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의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건설국장 개인의 의견이라는 것 보다는 우리구청의 의견이 어떤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원체 청장님께서 보문동지역에 그 보문동에 성북천, 정릉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또 우리 개선조직에서만 결정하는게 아니고 환경평가위원회라는게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는 그 상당수의 대학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 자연보호차원에서 개천을 덮으면 하천이 썩고 죽기 때문에 그건 절대불가하다 이렇게 부결이 됐고 우리와 같은 사항은 동대문구청에서도 올렸는데 거기도 역시 부결을 당한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 저희가 바라는 바와 그 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정반대 입장을 지금 견고하고 있고 그러나 저희는 하역간 성북천과 정릉천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올려가지고 그 결과가 좋은 방안이 나온다면 그 방안을 가지고 시에 다시한번 도전하려고 지금 이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柳興先委員 성북천복개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예, 답변됐습니까?

○文京周委員 같이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개천이 사장된다 죽는다해 가지고 그걸 환경보호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기술적인 면에서 충분히 그걸 배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같이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예, 보충질의입니까? 유홍선위원님,

○柳興先委員 예, 유홍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북천복개를 개할복개로 하면 절대 물이 안썩습니다. 가운데 즉 말하면 우리 성북천복개를 3등분해서 가운데는 태양도 받고 바람도 이 저 뭐랄까 모든 뚜껑을 딱 덮었을때는 통풍이 안되는데 개할복개는 통풍도 되고 태양도 받기 때문에 절대 물이 안썩습니다.

그래서 개할복개를 해서 즉 말하면 2층으로 밀어하고 위에하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빼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빼보니까 1400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차가. 1400대를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저하고 그 보문동에 윤만환위원하고 제가 일일이 양쪽에서 한번 빼봤습니다. 제가 자

로 재가면서 그것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동선1동, 삼선동, 보문동, 안암동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는 시대가 온다 이런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시청이나 구청 예산으로 못한다고 하면 민자유치로 해서라도 할 수 있을 그러한 업자를 끌어들이 수도 저희들은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충분한 논의를 해서 시청에 건의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여기 성북구청옆에는 푸경을 다 덮었기 때문에 물이 썩고 오염이 되는데 개합복개 신건축법에 의해서 개합복개로 하면 절대 물 안썩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건의를 해서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금 성북구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 좀 해주십시오. ○建設局長 李東湜 예, 유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垈 예, 관계관계서는 좀 잘 검토해서가지고 앞으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이승로위원님 답변을 안드렸는데요

○李承魯委員 예, 답변구하겠습니다.

견인자동차

○委員長 李鍊垈 견인자동차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예, 이승로위원님께서 질문하신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자동차 견인비용이 94년도에 1억원이 있었다는데 위원님 제가 이 책자를 가져왔는데 세출예산서를 가져왔는데 우리는 편성이 안됐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이따가 휴식시간에 물어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는 왜 그 견인업체를 민간대행을 시키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제가 91년도일 겁니다. 이때 시에서 각 구청에 견인업체를 한군데씩 전부 다 모집을 했었습니다.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견인업체를 운영할려다 보면 우선 견인차가 고가입니다. 보통 그것이 5대정도 있어야 하는데 한 2천만원씩 잡아도 1억원, 그 다음에 인건비가 견인기사들 5명, 사무원 또 책임자해서 한 7명정도라고 하면 그 인건비가 약2억정도가 소요되고

그리고 운영비라고해서 공공요금, 전기요금, 제반비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 성북구에서 업자가 신문공고해서 있었으면 이게 가능했었는데 희망자가 우리 성북구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견인대행업체는 시에서 이제 그런 구가 제가 알기로는 몇 개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견인대행업체가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만정하고 장안이 라는 회사에서 동대문구도 하고 성북구도 하라고 이렇게 구역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자본금을 대서 자기가 견인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일단 시로 이것은 진다해도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할 때 땅이 이제 견인차 그것도 아까가 차고 얘기했지만 견인차도 또 차고 5대분에 해당되는 땅도 있어야 되고 사무볼 수 있는 사무장소도 있어야되고 이래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보관소가 이것은 개인이 하는 대행업체고 견인보관소가 우리구에서 지금 창동보관소가 있고 마장동보관소가 있어가지고 두군데서 우리를 관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1대가 견인돼오면 아까 얘기한 식으로 30분당 500원씩 그 견인보관료를 받아서 이 사람들은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인데요? 이것도 견인보관소도 가급적이면 우리구에서 있으면 좋아서 이것도 같이 다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할려면 이걸 더 큼니다. 이걸 예산이 법적으로 견인보관소는 차량을 60대를 보관할 수 있는데가 한 300평정도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땅값만 우리가 평당500만원 잡았을 때 1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 보면 여기도 이제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희망자가 안 나옵니다. 약 우리가 그때 어림잡아 보니까 땅을 임대하는 셈치더라도 땅값이 한 6천만원정도...

○李承魯委員 예, 됐습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시면 견인을 대행할 그런 저기는 하나도 없고 간단하게 견인대행업의 그 자격요건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예, 그 전인대행업체는 그 자격요건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라든가 그 업체는 자격요건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차량이라든가 자기운영비 이런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李承魯委員 차량 1대도 가능하나요?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차량 1대가 가능합니다. 1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그 우리가 강제로 민간인한테 시킬 수는 없고 91년도에 그때 공고문 다 나갔을 때 우리구하고 몇 개구가 희망자가 없어서 시에서는 어쩔수 없이 인근 구하고 그렇게 뺏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시에다 진단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李承魯委員 그런데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인차는 2대죠?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전인이 말입니다. 우리 구청 차량으로 우리 공무원으로서 전인차량이 1대있고 우리는 아까 그 마장동에 있는 만전에 5대, 장안에 5대가 있는데 장안이라는 데는 아예 동대문구청을 맡기로 했고 저희는 만정5대, 민간대행업체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대가 주로 경찰서장 애기를 들고 이제 전인을 해가죠.

그래서 총 6대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경찰청에 또 우리가 25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별로 경찰청에서 또 막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25대가 전 서울시내를,

○李承魯委員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대행업체가 2군데 맞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예.

○李承魯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예, 나광수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세요.

○羅光洙委員 건설관리과장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번호7번, 자료번호7번 도로점용료부과 현황해 가지고 95년도 현황 동별금액, 위치와 번지해 가지고 구수입과 시수입으로

구분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월곡3동 17건중 시수입에 1건, 구수입에 16건입니다. 그러면 시수입에 26만5천2백원 이 기준치는 어디에서 나와있는지 또 거기 15m길인데 도로가 15m길이입니다.

그런데 시수입이 적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시고 또 구수입에 대해서는 16건의 668만 5,000원 그렇다면 월곡2동에 시수입에 38건에 726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은 어떻게해서 이런 차액이 나오는 것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5m길이라도 시수입이 되는 것인지,

○委員長 李鍊炯 예, 다음 한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순권위원님

○金順權委員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정책이라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지도과에서는 단속제도업무를 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제도 업무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정책이 피드백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를 통합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무릇 과라는 것은 업무중심으로 설치가 돼야지, 사람수 중심으로 설치되는 것은 지양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생계형 노점상 허용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하는 국가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울의 인접자치구같은 경우도 묵인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노점상단체들은 잠정허용구역이라든지 유도구역을 설정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차원에서 노점상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성북구에서도 생계형 노점상을 구역지정 해 가지고 양성화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북부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정릉 지역에 도로가 과다점용된 상태로 인해 가지고 교통난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점용료

는 부과할 수 없다 치더라도 공사가 가능한 최소 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본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각 가관점 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가관점 관리같은 경우는 이제와서는 전반적인 도시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그 모양새라든지 미적 부분들도 제도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보상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한국같이 쉽게 보상문제가 해결된 나라도 없습니다. 인접 일본같은 경우도 보상문제는 대법원판결이 나도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국유지라든지 공유지를 팔 때는 일년에 한번씩 우리들이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같은 경우 공사가 예산 문제 때문에 중장기적인 공사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보상협상가격이 일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 가지고 협상가격을 정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 보차선 분리 백선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효과는 첫째는 어린이라든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어린이로 하여금 준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물론 우리나라는 힘들겠지만 백선말에 각종 전기선이라든지 전화선이 매장돼 있습니다.

지금 물론 구청의 권한으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경찰서에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성북구 이면도로에도 백선을 보차분리선을 표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우리는 마을버스를 단속할 때 예고단속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불시단속이 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이구절에 보니까 주차장 해소대책에 학교운동장, 관공서, 교회마당, 유흥공장을 야간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아주 의욕적인 정책을 피셨습니다. 그러면은 학교운동장 확대에 대해서 교육청에 문서를 보낸적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지도업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은 다 단속업무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업무에 차원으로 봤을 때 단속이라는 것은 예방적 차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

으로 교통을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책으로서 차고지증명제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 두번째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차고지 무단변경하여 사용한 주차장같은 경우도 주차장 업무가 건축과업무지만 교통의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 지도과에서 건축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차고지 무단변경을 단속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예, 장창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鄭昌萬委員 96년도 주차위반 과오납이 몇 개나 발생했는지 답변주시고요. 가관점이 A형 33개소, B형이 20개소 있는데 입차권을 타인에게 양도나 전도한 것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예, 답변준비 됐습니까?

○建設局長 李東湜 예.

○委員長 李鍊炯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李東湜 예, 먼저 김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를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정책을 지도과에서는 단속을 주로 하는데 통합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석을 하건데 두과를 대과로 통합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기능별조정해서 재조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내포해서 답변을 올리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조직하는 데는 업무의 질, 양, 기능, 성질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그래서 가장 적절히 운영되는 그 방향으로 조직하는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는 말씀하신대로 주로 정책과 지도단속으로 이렇게 기능별로 나누어 가지고 두과가 분류돼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제가 여기서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통합한다는 것이 그 통솔의 범위에도 행정학에 나오는 애기인데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보편은 일부는 성질상 맞지 않는 것이 한 개 정도는 서로 엇갈려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것은 아마 과를 배분하다 보니까 또 양을 고려해서 양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흥적으로 여기서 시원한 답변을 못올리는 것을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좀 해 봐야 할 문제로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김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첫 번째 질문에 행정과 지도와 통합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향후 지금 지방경찰이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교통시설물 설치권한이 저희 구청에 거의 예를 들어서 땅바닥에 선하나 제대로 그울수가 없는 권한입니다. 전부 다 협의해야 되고 거기다 승인이 떨어져야 할 판인데 향후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시설 설치권한이 만약에 우리한테 이양이 된다면은 현재 저희 행정과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향후 된다면은 시설과가 하나 생기면서 하는 이 교통국이 설치가 돼야 되지 이 두과가 지금 뭉친다는 것은 좀 약간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면도로에 보차분리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면도로 11개소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지금 거의 이것도 전부 보차분리선이 지금 들어가고 중앙선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전부 경찰청 협의사항이 근 한 일년간에 걸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끝나가지고 12월말까지는 완성을 해주겠다는 그런 저희들이 언질을 받았습시다. 그리고 약 거의 대부분은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 지금 이면도로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계속 보차분리선을 설치하마로서 보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왜냐면은 보도를 설치하려면은 상당 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쏠예산으로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보차분리선 하안선을 긋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것은 향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마을버스 불시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예고를 하는 바는 없습니다. 예고를 하는 바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

다시피 저희들이 이면 행정력이 마치지 못해서 차고지 단속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구의 어떤 일정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이것을 단속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 결과를 한번 서면으로 한 번 답변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 개방에 대해서는 어떤 학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돈암국민학교는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돈암국민학교 교감선생님하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교육구청의 어떤 눈치를 봐야 되고 또 학부형들의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학교 나름대로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 구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교육구청협의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나 성과를 올린것은 돈암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교감을 설득해 가지고 지금 돈암국교 학교에서 교육구청에다가 약 68억을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주차타워를 설치해 가지고 돈암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주차시설을 제공한다는 걸로요. 그래서 과연 이제 교육구청에서 예산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이나마 저희들이 성과를 올린것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고지무단변경.

○委員長 李鍊炯 잠깐 제세요.

감사 시간 연장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은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복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여야하지만은 단서조항에 의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죠.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마지막으로 차고지무단변경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협의할 의향이 있는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주차허가

제를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그 집집마다 하나하나를 전부 다 들르고 있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였습니다.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예, 김순권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도 지도 업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버스업자, 택시업자, 마을버스정비업소는 연2회 지도를 하고 있고 계는 대행업소는 연1회를 지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우리가 단속보다도 예방차원에서 지도단속업무를 많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 귀담아 들어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이런 지도업무를 많이 발굴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차고지가 교통행정과로 제출되고 있지마는 이것이 3년전 하고는 좀 위원님 틀려질 겁니다.

왜그러냐면은 여태까지는 3년전에 마을버스 업자들이 차고를 빌려가지고 노외주차장을 빌려서 서류만 교통행정과에 켜버리고 그 이후에 안쓰게 우리구에도 20, 30%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이걸 뒤늦게 발견해 가지고 노외주차장에서 차고로 쓸 때는 그 노외주차장에 해당되는 거를 마을버스만 쓰게끔 일반인들을 못하게끔 그대수를 증지시키게끔 제도개선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를 이달부터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전에는 마을버스업자가 자기 마을버스를 길에다 주차 밤새도록 밤새주차를 시켜놓고 그 주차장을 이용을 안하면 마을버스업자만 우리한테 과징금 부과되고 그랬지만 이번 지침에 의해서는 마을버스업자 뿐만 아니라 그 노외주차장 주인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거기를 만약에 공용중지를 시켜놨는데 거기에 일반 자가용이나 일반차를 돈을 받고 거기다 주차를 시키면은 이제 노외주차장도 허가기 때문에 허가받은 사람도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많이 개선되고 우리 김순권 위원님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도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지도업무를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예, 김순권 위원님께서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과 정창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권 위원님께서 생계형 노점상을 허용하는 이러한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양성화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노점상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고압적으로 얹혀있는 상황이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사항도 하나의 관리방향으로서 설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큰방향은 그렇게 설정할 수 있다 해도 그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또 달리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도로는 도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로에 노점상이 있다든지 잡상인들 또 노상적치물이 있어 가지고 국민들의 도로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 정책적으로 노점상에 대해서 전혀 무시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우리의 현실을 고려 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그렇고 아, 지금은 이제 시청입니다마는 시청에서도 그렇고 이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도구역, 잠정허용구역, 금지구역 이런 식으로 이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선 구청장시대에서는 약간의 각 구청별로 자치단체별로 달리 관리될 그런 조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지금 아까 우리 정창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집단노점상에 대한 관리계획을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쪽에서 접근하는 논리는 모든 사람에게 법이 동등하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사람은 과태료나 부당 이득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안내고 이런 사항들은 없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대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는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겪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확보하자 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어떻게 될것이나 하는 것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위원이 이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얻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북부고속도로 공사장에 대해서 북부고속도로나 지하철공사장 현장 여기에 너무 과다하게 점용돼있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사현장에 대한 점용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었습시다마는 7월 1일 구청장이 부임한 이후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사항이 바로 그 사항인 공사현장이 너무 무질서하다 난립돼 있다 해서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종전에 공사감독관들 그다음 공사현장 사무소장들하고 감리자 일시에 다 불러가지고 청장님 주관하에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대한 과다점용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지도를 하고 앞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한 사항이 있구요.

그 다음에 엇그저께 저희들이 또 지금 공문을 현장조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기에 공문을 발송해서 지금 직접 오늘 직원들을 내보냈습니다. 직접전달을 해서 이것을 시정조치를 해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나가는 공문은 2회공문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시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관점 관리사항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건 상당히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 지금 이게 89년도에 가관점이 설치됐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도로상에 놔두고 가관점들한테 임대료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한 6년정도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안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델리키트(Delicate)한 문제인데요. 이 가관점은 서울시 것인데 소유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행정청이, 시범점 가관점 이것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추세인데 이것은 구청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또 다시 그 사람한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쪽에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양새나 미적감각만을 도로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은 참으로 깨끗하게 만들었으면은 좋겠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金順權委員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네.

○金順權委員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점상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자체라든지 인적, 물적교류가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정책을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북구에 미아로, 화랑로, 종암로, 안암로 전부다 조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설정해가지고 그쪽에서 연관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정책방향을 이점을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는 노점상같은 경우도 없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바에는 도시에 미관을 고려해가지고 단장하는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네, 수용을 해서 가능한 사항은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타국에 비해서.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는 강제토지수용법이 상당히 강제력을 발동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협상에 이제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공용지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제가 갑자기 법률조항이,

○金順權委員 특별법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얘기가 안나오는데요. 공토법하고 그 다음에 토지수용법 두개가 되어 있는데 협의에 의해서 보상이 될 때는 공토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안될 때 지금 토지수용법에서 강제력을 발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신속하게 되고 신속하게 되다보니까 주민들

이 충분한 보상가격을 못갖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정신적인 보상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 수준하고는 다르고요. 좌우간 이런 여건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임의대로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사업 인가가 떨어지면 바로 물건조사를 하고 보상물권, 물건조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감정을 합니다. 그 시점으로 감정을 해서 그 시점에서 보상가격이 결정이 되면 그 보상가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협의의를 하게 됩니다.

○金順權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형평성이 안맞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문제나 하면은 국유지라든지 공유지를 팔 때는 감정을 하게 되거든요. 두 개기관에 거기에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그 가격이 보상에 파는 가격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1년 이내에 돈을 못받으면 다시 평가해 가지고 가격을 팔게 되는 것이거든요.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똑같은 원리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요.

○金順權委員 네, 그런데요. 우리가 토지보상에 들어 갔을 때, 예를 들어 아리랑고개 길을 보상에 들어 갔는데 그 공사기간이 보상기간이 2년내지 3년이 걸릴수가 있거든요.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네, 있습니다.

○金順權委員 그런데 협상의 기준은 첫째건수로 한다고요.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이 이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보상가격이 나올것 아닙니까?

○金順權委員 예, 예.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그러면 그 협상을 하다보면은 자꾸 늦어집니다. 이게 1년이 지난다, 그러면은 다시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金順權委員 재감정.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1년이 지난 경우에.

○羅光洙委員 그러면 먼저한 것은 손해나 네?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그런데 거의 1년이 차이기 때문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金順權委員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예?

○金順權委員 시행하고 있냐고요.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예, 지금 그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羅光洙委員 행정할 것도 없고...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창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가판점에 대해서 지금 임대, 전대해준 사항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판점이 53개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임대, 전대를 해줄 수 없도록 그렇게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鄭昌萬委員 글썽, 규정이 그렇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네.

○鄭昌萬委員 그런데 임대나 양도해준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네, 지금 없습니다.

○鄭昌萬委員 없습니까?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네.

○鄭昌萬委員 정말입니까?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지금 이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지금 가판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파가지고 못나올 때 며칠씩 대리하고 있는 자기집 식구들이 와서. 이런 사항들은 좀 보이는데요.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鄭昌萬委員 가판점을 다시 점점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네.

○鄭昌萬委員 그리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鍊垈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제십니까?

○羅光洙委員 없습니다.

○鄭昌萬委員 답변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羅光洙委員 없고.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저는 정창문위원님 답변입니다. 우리 정창만위원님 질문하신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과태료 과오납한 건이 95년도 몇 건이냐고 그랬는데

138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인 이의신청을 내서 19대 이중납부가 101대 착오부과가 18대입니다.

○鄭昌萬委員 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안드릴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94년도 행정감사에도 이런 것이 지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착오없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산처리까지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101건인가? 이것도 이중납부가 돼있다는 겁니다. 어째서 이중으로 이게 납부가 됩니까? 도대체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것이 과태료 같은 것을 받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상당히 두려움속에서 항상 생각하는데 돈내는 것을. 이것을 두번씩이나 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다시 구청에 가서 주민등록 가져와서 확인해 가지고 돈내주는 것 아닙니까? 왜 주민들에게 불편하게 만듭니까? 한번해가지고 과오해서 잘못했으면은 그 죄 대가로 벌금을 한번쯤 은행에 가서 내면되는건데 두번씩 내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구청에 와서 교통지도과에 와가지고서 또 다시 환수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또 받아갑니다. 이것이 행정입니까? 이것은 상당히 먼저 94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101건이나 이렇게 있으니 주민들편에 서서 정말 최대한으로 전산처리되면은 이상없이 해준다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가지고서 이런 101건이나 불러졌을 때는 이것은 진짜 시간낭비를 너무 시킨겁니다.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나왔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이게 이중납부 착오부과가 우리 구청공무원만 잘못된게 아니라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일괄고지서를 발행해 주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10개월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는 발생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가 부과단속위반자를 입력을 하면은 우리가 그 다음날 검증할 화면 하고 수납부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이것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10월달에 이것을 서울시

전자계산소하고 전자 우리 컴퓨터에 대해서 잘모르지만 연구해본 결과 우리 구청 자체로 특수장비 갖춘 프린트가 딸리면은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 구청이 안하는데 한개구청하고 우리구하고 제일 먼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그것을 우리가 140만원돈 되는 그 정도됩니다.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지금부터 돌려서 지금은 이게 왜 이중납부가 되고 착오부과가 되느냐 하면은 이중납부 된 것 보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지가 두번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입력하면 우리가 출력해볼 수 있는 제도가 돼있어야 되는데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출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중간에 뽑아낼 수 있는 기계를 이번 에 하나 140만원을 들여서 들여와 가지고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시간이 남는 우리 직원하나를 아예 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것은 그 다음날 우리가 명부를 뽑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 입력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 찍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다가려내라 해서앞으로는 이런 완전히 근절이 됐고, 단 아까 전인 이의신청은 어쩔 수 없이 그건 나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위원님 그것은 과오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전인이 되면은 일단 전인보관서에서 경찰이 전인을 시켰든 어디서 전인을 시켰든 갖다놓으면은 우선 불법주차과태료 4만원하고 전인료 3만원하고 약간 수수료까지해서 7만몇천원을 물고 일단 차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법원에다가 법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내면은 우리는 불법주차과태료를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비송사건 처리절차에서 그것을 넘겨야 되는데 전인으로서의 과오납은 항상 이것은 앞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좀 이해 주시고 아까 이중납부나 착오부과로서는 분명히 이번에 기계장치가 보완되어 있니까 분명히 될 것으로 알고 먼저 작년도에 이런 것이 나왔는데 금년에 또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鄭昌萬委員 현재 전산기프로그램은 샀습니

가?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네, 샀습니다. 그 기계로 보완이 됐습니다.

○鄭昌萬委員 그리고 지금 전인차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과오납 101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예.

○鄭昌萬委員 전인차에 대해서는 그런 과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묻지를 않았어요.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예.

○鄭昌萬委員 그러니까 이중과오납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착오없이 해가지고 주민들 정말 괴롭히지 않게끔 돈을 두번씩내서 그것 찾으러 구청까지 와야 되는 그런것이 없어야 되니까 좀 시정좀 해주세요.

○柳興先委員 이중과태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네,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됐습니다. 또, 보충질의 입니까? 유흥선위원님.

○柳興先委員 유흥선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건설국장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한테 이것을 말해야 되는데 우리 즉 말하면 구민이 어떠한 세금을 냈을 때 그 영수증을 보관하지 안하고 있으면 다음에 어떤 또 세금고지가 왔을 때 그 돈을 냈다고 하면은 과거 영수증 가지고 오십시오 이런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을 잘 챙겨났으면 되는데 그 영수증이 불시에 어디 가버리고 없었다 이말입니다. 또 서울 같은데는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영수증을 챙길 수도 없고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냈다는 영수증을 못 찾으니까 다시 냈다 이말입니다 냈을 때 또 어느때 더 낸 것을 찾아 가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온다 이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다시 찾아가라고 구청에서 통보를 했을 때는 본인이 오면은 주민등록증 확인 한번하고 바로 내주어야 되는데 몇 번씩 와야된다 이말입니다. 우리 즉 말하면 우리 구민들이 몇번씩 와야된다 이말입니다. 세금 더 낸거야. 여기서 즉 말하면은 세금 미쳐못내면 과태료부과하지. 더내는 것은 그때 내주

지도 않고 세번 네번 와가지고 세금 찾아 간다는 말이 안될 말입니다. 더 이자를 못 줄망정 왔을 때 불편느끼지 않게 한번 왔을 때 내주어야지 왜 자꾸 되돌려 보내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 국장님들이나 청장님들이 잡 협의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런 불편없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鍊炯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제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또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1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13시에 이 자리에서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時24分 監査終了)

○出席委員 13人

李鍊炯	李承魯	金東殷
羅光洙	鄭昌萬	金甲濟
文京周	金順權	柳興先
丘在永	金鈴基	徐榮振
許東翼		

○缺席委員 2人

趙基燦 辛在福

○參席專門委員

專門委員 崔石根

○參席公務員

建設局長	李東湜
建設管理課長	丁奎允
交通行政課長	宋政宰
交通指導課長	威光男
土木課長	金雲熙
下水課長	金容俊